

## IV.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2. 3부의 성립과 활동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  
유일당운동

## IV.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1) 통군부의 성립과 남만한족통일회의

1920년 10월 약 2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의 침입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북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南滿洲 지역 한인 및 한국 독립군들은 일시 그들의 생활 터전 또는 근거지를 잃고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일찍부터 일제의 탄압이 심했고 청산리대첩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일본군의 난동이 극심했던 북간도지역은 한인사회가 뿌리 채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타격을 받기는 하였지만 북간도지역보다는 덜했던 남만지역의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본래의 근거지에서 산간 오지로 옮겨 새로운 독립군기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북간도 및 다른 지역에서 탄압을 피해 이주하거나 이동해 오는 한인 및 독립군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거나 자신들의 진영에 편입시켜 戰列을 넓혀나갔다.

독립군들은 망명 초기의 개척정신을 되살려 버려진 습지와 산간을 개간하여 농지로 일구었다. 그리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해 한인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그들의 근본 목표인 항일전을 전개하기 위한 굳건한 항전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였다. 그러나 10여 년간 일구어 온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독립군들이 새로 이주한 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오지였다. 이에 독립군들은 보다 효율적인 항전기지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남만의 독립군들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1921년 4월 北京에서는

朴容萬·申肅 등의 주도로 군사통일회의가 개최되었다. 군사통일회의의 개최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성공적인 무장항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들의 무력을 한 곳으로 통일시키자는 것이었다.<sup>1)</sup> 〈선언서〉에 나타난 군사통일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我獨立問題는 軍事가 아니면 해결이 불능이요, 군사운동은 통일이 아니면 성공은 난망일세, 於是乎 군사통일의 절대 필요에 감하여 내외지 각 단체의 연합으로 성립된 本會議는 其 목적이 실로 此에 不外하며 其 정신이 또한 此에 在할 뿐이로다(‘군사통일회의’ 명의로 1921년 5월에 공포된 〈宣言書〉: 尹炳奭, 《獨立軍史》, 지식산업사, 1991, 228쪽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조국의 독립은 통일된 무력을 통한 항전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국내외 민족운동가들은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항일전을 전개하기 위해 통일된 군사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주·만주·노령 및 국내에서 참가한 10개 단체의 대표 17명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 회의는 결국 대표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회되었고, 모든 무장세력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남북만주에서 파견된 독립군 대표들은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왔다.

군사통일회의를 통해서 만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 민족적으로 통일된 무장세력을 구축하여 보다 충실한 항전을 펼치려 했던 재만 독립군의 희망은 이같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남만주의 독립군들은 지역적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들만의 통일된 항일전선을 구축코자 하였다. 남만의 각 독립군단 대표들은 상호 연락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사를 합일시킨 뒤 1922년 1월 南滿統一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徐範善·金觀聲·李萬馨 등 23인으로 구성된 후원대까지 결성하였다.<sup>2)</sup> 西路軍政署를 비롯한 大韓獨立團·光韓團 등의 대표들은 수차례에 걸친 통일회를 가진 후 통합 독립

1) 尹炳奭, 《獨立軍史》(지식산업사, 1991), 228쪽.

2) 〈大正 11年 2月 16日, 不逞鮮人南滿統一後援隊組織ノ件〉.

군단인 大韓統軍府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새로 결성된 대한통군부의 부서와 간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 : 蔡相惠, 비서장 : 高齡信, 민사부장 : 李雄海, 군사부장 : 李天民,

교육부장 : 金東三, 실업부장 : 邊昌根, 사령관 : 金昌煥, 경무감 : 全德元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85, 126쪽; 崔衡宇, 《海外朝鮮革命運動小史》 제1집, 동방문화사, 1945, 7쪽).

성립과 동시에 간부진을 선임한 통군부는 항일전을 펼치기 위한 기지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만지역에는 통군부에 가입하지 않고 소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군단이 더 있었다. 그들까지 통합시키지 않고는 비록 남만지역만의 통합이긴 하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 없었다. 때문에 통군부의 간부들은 같은 해 6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잔류 군단들의 책임자들과 접촉을 가져 더욱 확대된 통합군단을 이룩하자고 결의하였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23일 桓仁縣 馬圈子에서는 南滿韓族統一會議가 개최되었다.<sup>3)</sup> 이 회의에는 이미 통군부에 가입해 있던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그리고 寬甸東路韓僑民團·大韓光復軍營·大韓正義軍營·大韓光復軍總營·平安北道督辦府 등의 대표 71명이 모였다.<sup>4)</sup> 이들 대표들은 金承萬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약 7일간 회의를 한 결과 참가한 모든 군단이 통합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6개항의 결의 사항을 결정하여 8월 30일 이를 남만의 한인사회에 발표하였다.

첫째, 각 단체 각 기관의 명의를 취소하고 구역 인물 및 제반 처리사항을 무조건으로 공결 복종할 것을 서명 날인하고 서약한다.

3) 1910년대 전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 한국 독립운동계에서는 백두산 이남부터 안동현까지의 압록강변에 있는 만주의 제지역을 서간도라 불렀으나 1920년대 초반부터는 남만주라 지칭하였다. 하지만 남만주는 서간도 보다는 넓은 범위를 가리켰는데, 북쪽으로는 경계가 하얼빈까지 올라갔다.

4) <大正 11年 9月 22日, 南滿韓族統一會決議事項並職員名 布告文 入手에 關한件>(《韓國獨立運動史》 4, 국사편찬위원회, 1968), 761~763쪽.

둘째, 남만한족의 통일기관명을 統義府로 결정한다.

셋째, 통의부 군대 명칭은 義勇軍으로 한다.

넷째, 제도는 총장제로 결정한다.

다섯째, 헌장은 9장 63조를 통과한다.

여섯째, 각 부서의 직원을 선거한다.

(〈남만한족통일회 결의사항 및 직원 각 포고문 입수에 대한 건〉,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493~494쪽).

이 결의문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체의 발족과 함께 이에 참여한 단체는 지금까지 사용한 명칭을 취소하고 모든 사항을 이 단체의 결정에 위임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관은 총장제를 실시할 統義府이며, 헌장을 제정해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등이었다.

## 2)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통의부는 재만 독립운동계의 지도자들이 합의를 본 결과 탄생한 통합 독립운동체였다. 따라서 통의부 성립을 주도한 인물들은 남만한족통일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코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우선 넷째와 여섯째의 결의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서와 간부를 선임하였다.

총장 : 金東三, 부총장 : 蔡相應, 비서관장 : 高齡信, 민사부장 : 李雄海, 검무국장 : 崔明洙, 교섭부장 : 金永萬, 선전국장 : 金昌義, 군사부장 : 梁圭烈, 사령장 : 金昌煥, 법무부장 : 玄正卿, 사판소장 : 李永植, 재무부장 : 李炳其, 학무부장 : 申彦甲, 권업부장 : 崔濟潤, 교통부장 : 吳東振, 참모부장 : 李天民

부서 조직 및 간부의 선임과 함께 통의부는 남만한족통일회에서 결의한 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최초의 헌장은 아직 그 원자료가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sup>5)</sup> 하지만 성립 이후 통의부가 펼친 활동을 고찰

5) 최초로 제정된 9장 63조의 헌장은 1922년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8일까지 개최된 제 1회 中央議會에서 7장 53조로, 그리고 다시 1924년 1월 8일 개최된 중앙의회에서 5장 38조로 개정되었다.

함으로써 현장의 내용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통의부의 활동을 크게 나누면 이주한인을 대상으로 한 자치활동과 항일 무장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치와 관련된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의부는 남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이주한인들을 중앙에서 총괄하여 관할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행정체계를 갖춘 지방조직을 설치하였다. 한인 거주 수에 따라, 1천 호를 기준으로 總管事務所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를 總管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총관 밑에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 100호 또는 200호로 1區를 조직하고 책임자인 區長을 임명하였다. 이 같은 방식에 의해 1923년 겨울까지 통의부의 총관사무소는 通化縣의 通化·通南, 桓仁縣의 桓西·桓南·桓東, 集安縣의 集安·集西·集南, 寬甸縣의 寬東·寬南·寬北을 비롯하여 興京·柳河·臨江·長白縣 등까지의 지역에 26 개소가 설치되었다.<sup>6)</sup>

통의부의 자치활동은 바로 이 지방조직들을 이용하여 행해졌다. 총관과 구장은 자신들의 책임 하에 일정한 행정체계를 갖춘 후 관할지역 내 한인을 대상으로 실업 장려·교육사업과 같은 자치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한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임무까지 수행하였다. 1922년 6월 20일 각 지방의 총관들은 總管會를 개최하여 실업 장려책을 결의하였다.<sup>7)</sup> 즉 이 회의는 총관의 주도하에 관할 한인들에게 양잠·직조·목축 등을 장려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회의 결과는 이후 한인사회에 충분히 반영 실시되었다. 그런가 하면 1924년 초에는 보다 체계적인 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각 한인 촌락에 노동강습소가 개설되었다. 이 노동강습소에는 17세 이상 35세 이하의 한인 청장년들을 입소시켜 합리적인 영농 교육을 습득시켰다.

이어 통의부는 한인 청소년들이 민족의 주체성을 이어 가고 구국활동을 펼칠 동량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펼쳤다. 기록에 나타난 대표적인

6) <大正 12年 12月 24日附 在通化阿部分館主任發信, 不逞鮮人團大韓統義府에 關한 件>(《한국독립운동사》4), 778쪽.

7)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

교육사업을 보면, 1923년 10월 지금까지 서당으로 활용하던 흥경현 旺淸門의 서당을 확장하여 신식교육 기관인 光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왕청문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 70여 명을 모집하여 국어·국사는 물론이고 수학·지리 등 새로운 학문을 교육시켰다.<sup>8)</sup>

한편 이러한 자치활동 외에 통의부는 다음과 같은 의용군을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펼쳤다.

〈統義府 義勇軍 간부 명단〉

사령관	金昌煥		
부관	金昌勳		
제1대대	대대장 姜南道		
제1중대 중대장 白狂雲	제1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소대장 金保國 소대장 田奉道 소대장 金基準	병력 100여 명, 무기 100여 정, 전성기 인원 800~900명
제2중대 중대장 崔頌淳	제1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소대장 金田 소대장 李奎成 소대장 申泰鳳	병력 130여명, 무기 136정, 전성기 인원 600~700명
제3중대 중대장 崔時興			병력·무기 미상, 국내진공전을 주임 무로 하였음. 전성기 인원 500명
제4중대 중대장 洪基柱	제1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소대장 張世龍 소대장 金國輔 소대장 申洪永	병력 50명, 무기 37정, 전성기 인원 500명
제5중대 중대장 金明鳳	제1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소대장 金昌天 소대장 金光秋 소대장 金一	병력 120명, 무기 123정, 전성기 인원 500명
유격중대 중대장	金昌龍·金河錫·文學彬		
헌병대 헌병분대장	宋憲		

8) 金正明 編, 〈大韓統義府の現況報告の件〉(《朝鮮獨立運動》Ⅱ, 日本 東京: 原書房, 1967), 1086쪽.

이 같은 편제의 통의부 의용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대별로 각각의 관할구역과 특수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즉 이들 5개 중대와 산하 각 소대 그리고 유격대 및 헌병대는 통의부 중앙본부에 있는 寬甸縣 下漏河를 비롯하여 통화·관전·임강·집안·환인·海龍·홍경현 지역에 배치되었다. 대원의 계급은 將士·正士·副士·參士의 등급이 있었고, 소대장과 중대장은 중국군 소위·중위·대위의 복제와 비슷한 다갈색 군복을 착용하였으며 군모와 휘장은 대한제국의 태극기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은 금과 은을 섞어 만든 것이었다. 간부가 아닌 병사의 경우는 정식 복제는 없었으나 한인 부녀자들이 제조한 중국 민병복과 비슷한 누르스름한 복장에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진입을 대비하여 변장하기 위한 일경의 복장도 다수 준비하였다.<sup>9)</sup>

이러한 체제를 갖춘 통의부 의용군은 국내와 만주를 무대로 일제를 상대로 한 항일전을 펼치는 한편, 일제의 주구인 친일 무리들까지 척결해 나갔다. 즉 1922년 12월, 의용군은 북쪽의 長春에서 남쪽의 大連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내의 친일파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3개의 隊를 편성하여 각지에 파견하였다. 임무를 완수치 못할 경우에는 죽음에 임하겠다는 서명까지 하고 출발한 파견대는 활발한 활동을 벌여 수많은 친일파들을 척결하였다. 그리고 1924년 6월에는 친일기구인 奉天 保民會長을 역임하고 일본 외무성 촉탁이었던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 崔晶圭를 처단하는 전과까지 올렸다.<sup>10)</sup>

통의부 의용군은 국내진입전을 통해서도 수많은 일제의 기관을 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1923년 6월 20일 의용군 1대는 신의주 고령삭면의 영산주재소를 습격하였고, 또 다른 유격대는 동년 8월에 청성진주재소 및 세관출장소·우편국 등을 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sup>11)</sup> 이 같은 통의부 의용군의 전투사례는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데 한 자료에 의하면, 1924년 4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진입전만 29회가 전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일제측의 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9) 朴杰淳, 〈大韓統義府 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243쪽.

10) 朴杰淳, 위의 글, 244쪽.

11) 《동아일보》, 1923년 6월 23일·10월 2일.



(1924년 6월 이전) 평안북도 방면에서 시국에 관한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본 단체(통의부)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있는 불령자의 침입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의용군의 국내진입전이 빈번히 전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sup>13)</sup>

통의부 의용군이 이같이 활발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독립군단이 통합됨으로써 대병력을 보유한 까닭도 있었지만, 통합 이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단의 병사들이 지리에 밝아 만주는 물론이고 국내 진입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의부가 이주한인을 대상으로 자치활동을 펼침으로써 한인들이 통의부를 지원하여 무력투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의부는 성립된지 얼마 되지않아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노출되어 분열 위기에 직면하였다. 통의부 구성원들은 성립 당시 통합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나머지 이념과 노선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 결과 성립 초기부터 간부들간에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측과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이념적인 갈등과 軍權을 둘러싼 인선 및 조직상의 이견 등이 생겨났다.

이 갈등은 통의부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던 전덕원과 梁起鐸의 불화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전덕원은 1906년 金斗燮과 평북 용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sup>14)</sup> 국권피탈 이후에는 渡滿한 뒤 大韓獨立團의 간부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반면 양기탁은 국권피탈 이전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였고, 1920년 말 만주로 망명한 이후에는 통의부 결성을 위해 남만지역 독립군단의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精神品行講演團을 조직하여 통의부 관할하의 한인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sup>15)</sup> 전덕원은 그의 전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 복벽주의자였으며 양기탁은 공화주의자였다. 이같이 두 사람 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방략이나 이념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두 지도자간에는 통의부 성립초부터 반목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

12) 《獨立新聞》, 1924년 7월 26일, 〈我獨立軍의 活動〉.

13) 朝鮮軍司令部編, 〈不逞鮮人ニ關スル基礎的研究〉(1924), 31쪽.

14) 朴敏泳, 《舊韓末 西北邊境地域의 義兵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6), 5쪽.

15) 한상도, 〈통의부〉(《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175쪽.

었다. 여기에 전덕원이 통의부로의 통합을 후회하며 공화계 지도자 모두를 거부하게 된 불만의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통의부 성립 초기 전덕원이 맡은 직책이 문제였다. 전덕원은 그 자신이 재만 독립군의 지도급 인사로 자처하고 대한독립단의 많은 병사들이 그를 따라 통합에 가담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의부의 여러 요직은 공화계 인사들이 담당하고 그에게는 큰 권한이 없는 檢務局長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sup>16)</sup>

이러한 갈등과 불만의 요인들은 급기야 무력적 충돌을 불러오게 하였다. 1922년 10월 14일 관전현에 있던 양기탁 일행을 전덕원계의 독립군 병사들이 습격하여 선전국장인 金昌義를 사살하고 양기탁·玄正卿·고활신 등 주요 간부를 포박하고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17)</sup> 이 사건 이후 통의부 내 북벽주의계열과 공화주의계열 사이는 완전히 적대관계가 되었다. 그리하여 1923년 1월에는 紅廟子 방면에서 양측간에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련의 불상사를 겪고 나자 양측은 더 이상 한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덕원을 비롯한 북벽주의계 인사들은 1923년 2월 통의부에서 분립하여 새로이 大韓義軍府를 설립하였다. 義軍府는 柳麟錫이 주장하는 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하고 ‘隆熙年號’를 사용하는 등 의병의 북벽적인 의식이 확고하였다.<sup>18)</sup> 의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총재 : 朴長浩, 부총재 : 蔡相惠, 사한장 : 朴弘濟, 정무부장 : 金有聲, 군무부장 : 全德元, 교통국장 : 韓鼎潤, 재무부장 : 李炳奎, 경무국장 : 桂聘, 종교부장 : 成寶運, 경리부장 : 趙大能, 참모부장 : 朴日楚

의군부는 성립 후 통의부와 잦은 마찰과 대립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립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 통의부측의 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을 겪고난 뒤 분열된 양 軍團간에는 더욱 심한 대립과 투쟁이 발생하여 양측만의 노력으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16) 《雙公 鄭伊衡 回顧錄》(國家報勳處, 1996), 70~71쪽.

17) 《獨立新聞》, 1922년 11월 8일, 〈慘憺한 西間島事變〉.

《雙公 鄭伊衡回顧錄》, 70~75쪽.

18) 朴杰淳, 앞의 글, 231쪽.

따라서 통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 蔡燦(일명 : 白狂雲)을 비롯한 金元常 · 朴應伯 등은 양대 세력을 하나로 다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심점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1923년 말 상해의 大韓民國臨時政府로 찾아갔다. 이들은 임정의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전말을 설명하고 임정이 그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9)</sup> 그리하여 임정의 인사들과 협의한 끝에 1924년 4월 南滿軍人代表 78명이 서명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一.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直轄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 一. 우리는 대동통일의 선봉이 된 것을 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치 하에 통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쓴다.
- 一.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내외 무장 各團의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시킨다  
(〈大正 13年 5月 21日, 通譯官木藤克己 警務局長丸山鶴吉殿, 南滿統義府軍隊ノ上海假政府管下ニ歸スル宣言文及警告文送付ノ件〉).

그러나 이 선언서의 내용은 독립군단들이 통의부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정의 밑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내용의 선언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상해에 간 채찬 일행은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측들이었다. 하지만 남만의 통합군단인 통의부는 이전의 군단들보다 규모는 방대했지만 자치와 무장투쟁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자치활동에 더 치중하는 면을 보였다. 때문에 이들은 그와 같은 통의부의 노선에 얼마간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임정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기회에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을 통의부에서 분리하여 그들만으로 임정직속의 군대를 만들 것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언서에 서명한 78인은 통의부 의용군 제1·2·3중대와 유격대 및 獨立小隊의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한 달 후인 5월에 또 다시 임정의 기치 하에

19) 《獨立新聞》, 1923년 12월 26일, 〈蔡·金 兩氏의 談〉.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同志會, 1956), 398~399쪽.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265쪽.

통일되어야 할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를 발표하고 통의부에서 분리하여 대한민국립시정부 陸軍駐滿參議部를 조직하였다.<sup>20)</sup> 이어 6월에는 金鳴鳳이 이끄는 통의부 의용군 제5중대도 〈선언서〉를 발표하고 통의부를 이탈하여 참의부에 가입하였다.<sup>21)</sup>

의군부에 이어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세력이 또 다시 참의부를 조직하여 이탈하자 통의부의 세력은 현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의부는 이들 두 세력의 이탈로 성립 초기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남만지역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보유한 독립군단이었다. 따라서 이후 통의부의 지도부는 이러한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고, 주변의 다른 민족운동 세력들을 다시 규합하여 통일된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蔡永國〉

## 2. 3부의 성립과 활동

### 1) 참의부의 성립과 활동

1922년 8월 남만지역의 여러 독립군 세력을 결집하여 조직된 大韓統義府의 성립은 독립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망명 민족운동가들의 숙원이 한 단계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통의부는 앞에서 살핀 바대로 조직원 상호간 불화가 일어나 그들 중 일부가 의군부를 조직해 분리되어 나갔고, 또 다른 일부는 참의부를 조직하여 이탈하였다.

그런데 이같이 성립한 參議府의 성립시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대비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참의부 성립의 주역인 蔡燦 일행이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23년 12월 2일이었

20)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323~324쪽. 기존의 연구에서는 참의부 성립 일을 1923년 8월로 보는 견해도 있다(유준기, 〈참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10~212쪽).

21) 《獨立新聞》, 1924년 7월 26일, 〈南滿洲義勇軍第5中隊에서 ‘宣言書’를 발표〉.

다. 그리고 채찬이 《독립신문》 기자와의 대답에서 “近間에는 全氏一派도 다시 중앙기관인 통의부에 歸入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완전히 합동되야 住民은 安樂의 福을 享하고 통의부의 사업은 蒸蒸日上히 進할 것입니다 …”<sup>1)</sup>라고 말해 남만주의 유일한 통합 단체를 통의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1923년 말까지 참의부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통의부의 용군 제1·2·3 중대 및 유격대, 독립소대 대표들이 임시정부 기치 하에 통합을 이루자는 〈선언서〉는 1924년 5월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참의부 조직 시기는 1924년 1월에서 5월 사이로 추정된다.<sup>2)</sup>

이와 같이 성립된 참의부의 성립 초기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參議長 曺	제1중대장 蔡燦	제2중대장 崔碩淳	제3중대장 崔志豐
제4중대장 金昌彬	제5중대장 金蒼天		
독립소대장 許雲起	훈련대장 朴應伯		
중앙의회 의장 白時觀	민사부장 金篠厦(일명: 張基礎)		

민사부에서는 集安·通化·桓仁·柳河·撫松·長白·安圖·寬甸縣 및 奉天省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이들 지역을 13개 地方行政區로 나누어 행정구 대표를 뽑고 이들을 軍民自治에 종사토록 함(金承學, 《韓國獨立史》, 399쪽).

창립 초기 참의부는 이들 간부진 밑에 약 500명 이상의 병력으로 남만의 압록강변 중국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해 지역 내 한인들에게 자치행정을 실시하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sup>3)</sup> 그런데 이같은 간부진의 구성은 창립 이래 수차에 걸쳐 바뀌게 되는데, 통의부 등과 마찰에 의해 간부가 피살된 경우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참의부가 본부 및 소속 부대의 근거지를 국내진입이 쉬운 압록강변에 위치해 놓고 수시로 일제를 상대로 유격전을 펼쳐 많은 간부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1) 《독립신문》, 1923년 12월 26일.

2)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323~324쪽.

3) 尹炳奭, 《獨立軍史》(지식산업사, 1991), 128쪽.

그런가 하면 1925년 4월에는 단체의 명칭을 중앙의회의 의결을 거쳐 督辦府(또는 鎮東都督府)라 고치고 진로를 새롭게 한 바 있다.<sup>4)</sup> 그 이유는 1925년 3월 참의부는 초산의 대안인 집안현 古馬嶺에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간부들이 대거 전사하게 된 고마령전투가 있었다. 게다가 그로 인해 내부에 내홍이 일어나 제1중대장 洪碩浩가 암살 당하였다. 따라서 참의부는 이 같은 조직 내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조직의 명칭을 고치고 노선 또한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진동도독부는 참의부 시기와는 달리 항일무장 투쟁 위주가 아닌 이주한인을 위한 자치와 군사활동을 똑같이 중시하는 노선을 지향하였다.<sup>5)</sup>

하지만 같은 해 5월 임정에서 파견된 특사의 지시에 의해 명칭은 6월 26일자로 다시 참의부로 환원되었다.<sup>6)</sup> 참의부의 명칭은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노선만은 진동도독부 때와 마찬가지로 軍事와 民事를 동등한 비중으로 시행하였다. 무장투쟁 위주의 노선을 가졌던 초창기에는 참의부의 중앙조직 자체가 앞에서 본 바 같이 군사적 조직을 갖춘 군사위주의 것이었다. 그러나 1926년 6월 26일자로 발표된 의회의 결의사항에 의하면 참의장 1인 밑에 군사위원 4인, 민사위원 4인을 두는 조직체를 갖추고, 무장투쟁과 자치활동을 균등하게 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8월 8일에는 공포 제2호로 참의장 및 각 부의 위원과 행정위원회의 시행방침을 발표하여 새로운 노선의 활동방향을 공고히 하였다.<sup>7)</sup>

한편 압록강 접안인 집안현 花甸子에 본부를 구축하고 뛰어난 무장투쟁력을 보인 참의부 독립군의 각 중대 근거지는 다음과 같다

4) <高警第3267號 大正 14年 9月 16日, 鮮匪團督辦府ノ改稱ト決議事項ニ關スル件>(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필름(이후부터 ‘아연필’로 표기함) 문서번호 100-4-031), 1,108・1,116쪽.

5) 위와 같음.

6) 위와 같음.

7) <高警第3267號 大正 14年 9月 16日, 鮮匪團督辦府ノ改稱ト決議事項ニ關スル件>, 1118~1122쪽.

제1중대 및 소속부대 集安縣 榆樹林子, 台上, 頭道溝, 二道溝, 楊子溝

제2중대 및 소속부대 集安縣 磊子溝, 大鏡溝, 志荒溝, 古馬嶺

제3중대 및 소속부대 桓仁縣 城內, 頭道溝, 二道溝, 上漏河, 下漏河

제4중대 및 소속부대 集安縣 花甸子, 營台溝

제5중대 및 소속부대 通化縣 通南, 大泉眼

(〈鮮匪參議府之根據地〉, 通化縣 당안관자료).

이들 근거지들 가운데 제 5중대 및 그 소속부대의 근거지인 통화현만이 압록강변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일 뿐 나머지는 모두 압록강 근접지역이다. 이와 같이 일제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최전방에 근거지를 구축한 참의부는 이들 근거지들간에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근거지를 보호하고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더욱 내실 있는 군사력 구축을 위해 독립군 중 뛰어난 인재를 선출하여 중국의 군관학교에 보내 무예와 전술을 연마토록 하였다. 예컨대 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1928년 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측의 자료에 참의부 제2중대 正士 張興旺과 副士 咸益淳이 廣東軍官學校에 입학하기 위해 上海로 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sup> 시설이 좋은 중국의 군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이들 유능한 독립군들은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참의부 독립군들에게 신식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군사력을 한층 높여 갔다.<sup>9)</sup> 또 이렇게 진출한 참의부군 중에는 중국의 蔣介石軍에 합류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군사위원장이었던 蔡君仙이 그러한 경우였다.<sup>10)</sup>

참의부의 민사조직은 관할 지역 내에 지방행정망을 구축하여 이루어 졌다. 관할지역은 집안현을 비롯 寬甸·桓仁·通化·撫松·長白·安圖·柳河의 각 縣을 포괄하는 압록강변 지역으로 관할지역 내의 한인은 15,000호 이상이었다.<sup>11)</sup> 참의부는 이들 관할지역 내의 한인을 매 千戶 단위로 百家長을 두고

8) 〈軍官學校入學〉(集安縣 당안관 자료).

9) 〈昭和 3年 7月 調, 在滿鮮人思想團體分布의 概要 第2〉(《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1968), 759쪽.

10) 〈昭和 3年 5月 31日, 不逞鮮人支那南方軍參加에 關한 件〉(《韓國獨立運動史》5, 국사편찬위원회, 1968), 749쪽.

그 밑에 十家長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한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行政區를 설정하고 50명 전후의 경호대원을 육성하여 지방 치안을 유지하고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다.<sup>12)</sup>

참의부가 실시한 자치행정은 다음과 같다. 관할지역 한인자제의 교육을 위해 각 지방 행정구역에 3개 이상의 소학교를 설치하고, 중국 당국과 교섭하여 중국 중학교에 韓人科를 두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3)</sup> 또 관할지역인 집안현 榆樹林子에는 東興病院을, 본부가 있는 화전자에는 東華病院과 화전자병원을, 통화현 大泉眼에는 通東病院을 설치하고 軍醫를 파견하여 한인의 건강을 보살폈다.<sup>14)</sup>

한편 民事組織인 백가장 밑에는 保險隊라는 특수조직이 편성되었다.<sup>15)</sup> 보험대의 임무는 각 중대 및 소속부대간의 통신은 물론이고 참의부 독립군들이 유격대를 편성하여 국내에 진입할 경우 안내 역할까지 맡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격대와 함께 무장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하부 조직은 참의부 독립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관할지역 내 한인들에게 부과되는 의무금을 징수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즉 보험대는 군사 및 민사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 참의부의 최하부 행동대였다.

이어 참의부의 무장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의부는 그들의 무장병력을 한·중 국경인 압록강변의 중국지역에 집중 배치시켰다.<sup>16)</sup> 특히 평안북도 초산·위원·만포·자성의 대안인 집안현은 참의부의 주요 군사 근거지이자 활동무대였다. 따라서 참의부의 5개 중대 중 3개 중대(제 1,2,4 중대)가 집안현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2개 중대는 집안현과 접해있는 환인현(제3중대)과 통화현(제5중대)에 배치되었다. 이들 각 중대의 배치병력은 중대 당 150명

11) 유준기, <참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군사편찬위원회, 1988), 224쪽.

12) 유병호, <1920년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制’—정의부와 참의부의 항일 근거지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2), 252~253쪽.

13) <昭和 3年 7月, 在滿鮮人思想團體分布의 概要 第2>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4), 759쪽.

14) <鮮匪病院> (通化縣 당안관 자료).

15) <抄件> (集安縣 당안관 자료).

16) <鮮匪參議府之根據地> (通化縣 당안관 자료).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22~123쪽.



으로 이들 또한 한 지역에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각 소대별로 주변의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었다.<sup>17)</sup>

분산되어 있는 근거지들 사이에는 중간중간 한인의 집에 통신원을 파견하여, 그 곳을 거점으로 장기간 머무르게 하고 주변의 정세를 파악한 후 신속히 연락토록 하였다.<sup>18)</sup> 그리고 이같이 구축된 조직망을 심분 활용하여 무장 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중대 또는 소속부대에서 작전계획을 세워 유격대를 구성하면 작전의 내용 및 목적지가 근거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통신원에게 하달되었다. 최초의 명령을 받은 통신원은 유격대가 목적지까지 통과할 이동로에 있는 다른 통신원들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이동할 지역의 중·일 군사시설 및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같이 하여 안전지대가 설정되면 통신원들은 유격대원들을 안내하였다.<sup>19)</sup>

참의부 대원들이 이 같은 활동을 벌이자 일제는 만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탄압하지 않고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 6월 11일 〈三矢協定〉을 중국측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와 봉천성 경무국장 于珍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중국의 무력을 이용해 재만 독립군을 탄압케 한다는 것이었다.<sup>20)</sup>

참의부 및 정의부 활동지역인 남만의 20현(안동·홍경·통화·봉성·관전·환인·임강·집안·장백·안도·무순·본계·해룡·휘남·무송·유하·금·복·축암·장하)을 시행구역으로 정하여 마치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명령을 하달하듯 중국측이 독립군을 단속하고 탄압하여 일제에게 그 성과를 보고한다는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 〈鮮匪參議府狀況〉(通化縣 당안관 자료).

18) 〈鮮匪團參議府第二中隊特派通信員動靜〉(集安縣 당안관 자료).

19) 〈抄件〉(集安縣 당안관 자료).

20) 〈不逞鮮人の取締方に關する朝鮮總督府奉天省間の協定〉(《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 日本 東京: 原書房, 1965), 75~76쪽.

〈삼시협정의 폐지〉(《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460~462쪽.

2조: 중국관헌은 각 縣에 通令하여 在留鮮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범한 자는 이를 체포하여 朝鮮官憲(일제의 軍警)에게 인도한다.

3조: 不逞鮮人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이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4조: 朝鮮官憲이 지명하는 不逞團 수령을 체포하여 조선관헌에게 인도한다.

〈삼시협정〉의 핵심은 중국군경이 한인 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일제 측에 넘긴다는 것이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8일 중국과 일제는 위의 조항을 시행하는 세부지침 12개 조항을 체결하였다.<sup>21)</sup> 그 문구로만 판단한다면 재만한인의 생명은 양국의 軍警 및 관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세칙들이었다.

〈삼시협정〉이 발표되고 나자 중국 東三省의 각 지역, 즉 吉林省을 비롯해 遼寧省·안동현·장백현·임강현·하얼빈 등의 중국 군경 수뇌자들은 〈韓人取締規則〉을 제정하여 재만 한인의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sup>22)</sup> 특히 임강현의 경우는 〈삼시협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하여 관내의 이주한인 320여 호 중 약 150호(450명)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 한인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일제는 독립군 및 배일한인을 이 같이 중국의 武力으로 탄압하게 한 다음 駐通化日本領事館分館을 在外帝國領事分館主任受持區域으로 정하여 통화현 주변의 각 현에 경찰을 파견하였다.<sup>23)</sup> 이들 파견된 일제의 경찰들은 중국 군경대와 합동하여 한국 독립군을 탄압함은 물론 체포된 독립군을 한국 내로 압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21) 〈불령선인 단속 시행 세칙〉(《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464~466쪽.

22) 《동아일보》, 1925년 9월 25일·1927년 12월 28일·1928년 3월 31일.

〈大正 15年 11月, 長白縣知事の 移住鮮人取締方針〉(《한국독립운동사》 5, 국사편찬위원회), 664~665쪽.

〈昭和 2年 5月 5日, 日支協定에 基한 鮮人取締를 徹底히 하기 위하여 退去命令을 發한다〉, 같은 책, 665~666쪽.

〈大正 15年 1月, 遼寧省 不逞鮮人取締, 管理韓僑章程總則〉, 같은 책, 671~672쪽.

23) 〈興京派遣所에 當館警察官配置의 件〉(《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15~817쪽.

중국의 군경까지 끌어들여 이러한 탄압을 가했지만 참의부의 독립군들은 신명을 다한 항일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즉 참의부 대원들은 만주 내에서 이 같은 중·일의 삼엄한 탄압을 피해가며 국내로까지 침투해 무장투쟁을 펼쳤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국경을 철저히 수비한 일제의 국경 수비대까지 상부의 보고서에 “同團(參議部)은 他의 여하한 部隊보다도 활동목표를 鮮內로 하여 침입하고 있으므로 국경방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同團의 所爲이다”라고 밝혔다.<sup>24)</sup>

국내진입작전을 시행할 경우 통신원의 안내로 압록강변에 도착한 유격대원들은 입고 있던 군복 내지는 중국복장을 벗어버리고 준비해온 한복으로 고쳐 입었다. 그리고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도강하여 국내 통신원의 집에도 도착하였고 상황을 판단한 후 작전지역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하였다.<sup>25)</sup>

이와 같이 참의부 대원이 전개한 국내진입전 중 기록상에 나타난 몇 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924. 5. 19. : 제2중대 1소대 소속의 張昌憲이하 대원 8명은 평북 위원군 馬嘶灘의 압록강변에서 소위 국경을 순시한다고 경비선을 타고 통과하던 조선총독 사 이도 마코토(齋藤實) 일행을 공격함.
- －. 1924. 5. 29. : 제1소대 2분대장(중대 미상) 金昌化부대 7명은 평북 후창군 牛項嶺에서 일경찰대와 접전 후 1명 사살, 1명 중상을 입힌 후 이동하여 同郡 城千面 內洞의 營林廠을 습격하여 소각함.
- －. 1924. 6. 24. : 평북 자성군 임시주둔대 8명은 同郡內 민가에 잠복중인 일경찰대와 교전하여 일경 2명을 사살하였으나 일등병 金連學과 이등병 李吉詳이 전사함.
- －. 1924. 7. 24. : 제1중대원 李義俊은 평북 강계군 漁雷面에서 일제의 밀정 張得成을 총살함.
- －. 1924. 8. 9. : 참의부 독립군 1대 평북 구성군 造岳洞 금광사무소와 창성군 德洞 금광사무소를 습격함.

24) <昭和 3年 7月 調, 在滿鮮人思想團體分布의 概要 第2> (《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759~760쪽.

25) 集安縣 당안관 자료.

《東亞日報》, 1928년 9월 11일.

- －. 1924. 9. 27. : 제1중대 소속의 소대장 李應瑞(일명 : 李白坡) 부대 8명은 평북 강계군 古臺洞에서 밀정 桂永八・桂龍熙・尹禎高 등 3명을 사살하고 이동하여 다음날 公北面 香江洞에서는 밀정 池成龍을 사살함. 또 동년 10월 6일에는 위원군 渭松面 石浦洞에서 밀정 李贊鳳을 사살함.
  - －. 1925. 3. 29. : 제1중대 독립군 20명이 평북 자성에서 일경과 교전함.
  - －. 1925. 10. 18. : 參事 孫用俊이 지휘하는 1대 7명이 평북 강계군 外貴面 興判洞에서 일경 6명과 교전 후 퇴진함.
  - －. 1926. 7. 10. : 제2중대 소속의 李壽興이 단독으로 국내진입작전을 감행하여 동대문의 東小門과출소를 습격하고, 柳澤秀・柳南秀를 동지로 포섭하여 9월 9일 안성군 부호 朴承六의 집과, 10월 20일 경기도 이천군 栢沙面의 玄芳주재소 및 백사면사무소를 습격함.
  - －. 1926. 11. 12. : 참의부 許雲起 부대 6명이 평북 자성군 長士面 湖下洞에서 同地 주재소의 순사 5명과 교전함.
- (《獨立新聞》・《東亞日報》・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4・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朝鮮總督府警務局, 《高等警察關係年表》・集安縣 당안관 자료 등).

위의 전투 중 중요한 것을 들자면, 1924년 5월 19일 압록강변에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이 승선한 선박을 선제 공격한 전투이다. 사전에 사이토가 압록강변의 일본군 국경수비대를 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참의장 채찬은 제2중대 1소대 대원들을 특공대로 조직하여 평북 위원군 마시탄에 매복시켰다. 이 특공대는 총지휘관이 장창헌이었고, 제1소대장 참사 韓權雄, 伍長 李春和, 일등병사 金昌均・玄成熙・李明根・金呂河・田昌植외 8명으로 조직되었다. 아침 9시 경 사이토가 탄 경비선이 압록강을 따라 참의부 특공대원들이 매복해있는 지점에 나타났다. 순간 총지휘관 장창헌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고, 특공대원들은 일제히 총격을 가하였다. 참의부 대원들의 순간적인 공격으로 당황한 일제의 국경순시선은 단 한번의 반격도 해보지 못한 채 전속력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비록 이 기습전에서 특공대원들은 사이토를 총살한다는 원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전투는 한국 독립군의 활동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계기로 참의부 독립군의 용맹성은 더욱 고조되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전투가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위에 기록된 참의부의 전투일지는 전체를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참의부가 주로 활동한 국내의 지역과 그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를 선별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일지를 살펴보면 참의부의 국내활동 지역은 압록강과 접한 평안북도의 위원·자성·구성·강계·창성·후창 등이다. 그리고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는 1924년 중반부터 25년 말까지이다. 1926년 이후 참의부의 국내활동 사항은 점차 감소하다가 27년 이후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1920년대 후반기로 가면서 참의부는 내부적으로는 신민부·정의부 등과 함께 독립군 통합운동을 모색하면서 어수선했음을 보였다. 또 1928년 10월에는 재무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한의제가 고동호·독고옥 등과 함께 鮮民府라는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참의부를 배반하고 일제에 협조함으로써 조직내부의 분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sup>26)</sup> 외부적으로는 1925년 6월 〈삼시협정〉 체결 이후 갈수록 더해 가는 중·일의 탄압에 대항한 만주에서의 투쟁이 큰 몫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참의부는 1920년대 후반에는 조국독립을 위한 주된 방략으로 삼았던 국내진입 유격전 대신 만주 내에서의 대일항쟁 내지 친일단체 척결에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참의부군의 만주에서 투쟁은 중국측 자료에 의거 소소한 것까지 살펴보면 존립 전 기간에 걸쳐 변함없이 많다. 예컨대 국내진입전에 주력하던 시기에도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중·일 군경대와 충돌하였다. 관할 부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그리고 참의부의 분산되어 있는 근거지들을 일제나 중국의 군경대가 침입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같은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5년 3월 16일 전개된 고마령전투이다. 이 전투는 집안현 산중에서 참의부 간부를 비롯한 대원들이 중대군사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때 밀정 李竹坡의 인솔로 일제의 초산 경찰대가 습격하여 일어난 것이었다.<sup>27)</sup> 회의 도중 대규모의 일제 경찰대의 습격을 받은 참

26) 〈昭和 4年 9月 21日, 한족동향회 내경에 대하여〉(《독립운동사자료집》 10), 414~419쪽.

의부 간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하여 양측은 장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투태세에 임하지 못하고 급습을 받은 참의부측은 육탄 전까지 감행하였으나 결국 큰 피해를 입고 패하고 말았다. 참의장 崔頤淳을 비롯 田昌禧·崔恒信·全德明·安貞吉·金用武·金鶴松·潘昌炳·崔吉星·白明浩·張鏡煥 등 29명이 전사하고 제1중대 소대장인 田世用 등 많은 참의부 대원들이 부상당하였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중반 재만 독립군단 중 가장 활발한 무장투쟁을 전개한 참의부는 그 근거지 자체가 일제의 표적이 되었다.

##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남만의 통합독립군단인 통의부가 분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서는 1923년 1월부터 전 독립운동세력을 일대 결집시키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통의부의 총장인 金東三을 의장으로 하고 安昌浩와 尹海를 부의장으로 하여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의였다. 국내를 비롯 미주·상해·만주·노령 등 각 지역에서 120여 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그들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립운동자들의 기대는 대단하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해의 임시정부를 개조하여 계속 존속시키느냐, 아니면 상해의 정부를 폐하고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느냐 하는 문제로 대표자들이 대립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의 결렬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실질적인 독립운동 중추기관으로 개조한 후 만주의 독립군단들을 통합하여 그 산하에 두어 일관적이고 총체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려했던 재만 독립군단 지도자들의 이상도 무산된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독립운동 세력의 총체적 통합을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었지만 무장세력의 통합만이 효율적인 항일세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은 재만 독립군 지도자들은 이 같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독립군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다. 즉 남만 각 독립군단들의 지도자들은 1923년 9월부터

27)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267쪽.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同志會, 1956), 400~401쪽.

小綏芬軍事聯合會議・樺甸縣會議・額穆縣黑石屯會議 등을 개최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sup>28)</sup> 독립군단 통일을 위한 이같은 회의는 남만 무장세력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던 대한독립군정부의 李相龍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sup>29)</sup>

그러나 이들의 회의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 회의의 무산으로 통합이 어려워진 것과는 상관없이 의성단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재만 독립군단의 통일에 노력하던 梁起鐸이 국민대표회의 당시 創造派에 속했던 申肅・윤해 등과 접촉을 갖고 통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일단 통합의 방향을 전만주의 독립군단들을 통합한 후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屯田兵制를 실시, 산업을 일으키면서 군사를 양성하는 실력양성론으로 하였다. 그리고 통합 후 또 다른 분열의 소지를 줄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배격하기로 합의하였다.<sup>30)</sup> 이어 남만지역의 독립군 지도자들인 李章寧・池青天・朴觀海・孫一民 등을 설득하여 1924년 3월 하순에 全滿統一會籌備會를 조직하였다.<sup>31)</sup>

전만통일회주비회는 남북만 전체의 한인 무장세력을 총괄하는 통일세력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계획은 원래 국민대표회에 미주지역의 대표로 참가했던 박용만이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는 미주에 있으면서도 네브라스카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요원을 양성하는가 하면, 國民軍團이라는 미주지역의 독립군단을 조직한 무장투쟁론자였다. 그는 조국해방을 위해서는 한민족의 모든 무력을 한 곳으로 집중할 軍事統一會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따라서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창조론의 입장에서 뜻을 같이했던 신숙과 윤해 등이 그 계획을 실천코자 양기탁과 접촉을 벌여 전만통일회주비회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28) <大正 13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概況>(아연필 200-3-049), 33~35쪽.

29) <大正 13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概況>, 32~33쪽.

30) <大正 13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概況>, 33~35쪽.

31) 위와 같음.

32) 위와 같음.

주비회는 李章寧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창립 이후 약 4개월간 각 단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24년 7월 10일 주비회의 의견에 찬동한 각 단의 대표들에 의해 길림에서 주비발기회가 개최되었다. 이 발기회에 참가한 각 단 및 그 대표는 다음과 같다.

軍政署	代表	李震山・李光民	吉林住民會	代表	李旭
大韓光正團	대표	金虎・尹德甫(일명:尹秉庸)	大韓獨立團	대표	李章寧・尹覺
大韓統義府	대표	金東三・李鍾乾	勞動親睦會	대표	崔明洙
義成團	대표	承震			

이들 7개 단체의 대표들은 협의하여 두달 보름 후인 9월 25일 吉林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것과 본회의 개최 이전 발기회에 참가한 각 단의 대표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남북만 각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본회의에 필히 참가하도록 권유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sup>33)</sup>

그러나 9월 25일 개최키로 하였던 본회의는 10월 18일에 가서야 위의 7개 단체 외에 卡倫自治會(대표 尹河振)・固本契(대표 辛亨奎)・學友會(대표 金鐵) 등 3개 단체가 더 참가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sup>34)</sup> 이들 10개 단체 대표들은 회의 의장으로 통의부 대표 김동삼을 선출하고 새로운 독립군단의 명칭과 이후 새 군단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을 선임하였다.

自治	李震山・孟喆鎬・崔明洙	軍事	李章寧・曹煜・金鐵
教育	李昌範・高齡信・金東三	財政	金虎・尹德甫・承震
生計	朴正祚・金定濟・白南俊		
중앙행정위원	李 沔・吳東振・玄正卿・金履大・尹德甫・金容大・李震山・金衡植・池青天		

(〈在外不逞鮮人の 狀況〉, 《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738쪽).

33) 〈在外不逞鮮人の 狀況〉(《韓國獨立運動史》4, 國史編纂委員會), 737~738쪽.

34) 〈在外不逞鮮人の 狀況〉(《韓國獨立運動史》4, 國史編纂委員會), 738쪽.



그러나 회의 이후 대한독립단과 학우회는 중도에서 탈퇴하였다. 대한독립단의 경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옹호문제에 있어, 다른 단체와는 달리 새로운 통합 군단은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며, 학우회는 기존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른 단체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35)</sup> 따라서 이 조직표 이후에 나온 정의부의 초기 중앙 조직에는 학우회의 대표였던 金鐵과 대한독립단의 대표였던 이장녕·孟喆鎬 등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에 동의한 8개 단체는 1924년 11월 24일 다시 화전현에 모여 全滿統一會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독립군단인 정의부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sup>36)</sup> 이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의결하였다. ① 本府의 명칭은 正義府로 한다. ② 본부의 憲章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 본부의 창립기념일은 1924년 11월 24일로 한다. ④ 본부의 연호는 ‘紀元年號’를 사용한다. ⑤ 본부의 會計用 貨幣는 奉小洋을 표준으로 한다. ⑥ 毎年 豫算案을 편성하여 그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⑦ 정의부의 운영을 위한 募捐은 폐지한다. ⑧ 公農制를 실시한다 등이었다.<sup>37)</sup> 이와 같은 의결과 함께 대표들은 각 단이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할 동안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기관으로 樺甸縣에 臨時行政執行委員會를 조직하였다.<sup>38)</sup>

8개 단체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1924년 12월 31일 군정서가 제일 먼저 명의를 폐지하고 통합 독립군단인 정의부에 합병한다는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義成團이 1925년 1월 15일 같은 취지의 선포문을 발표하였다.<sup>39)</sup> 이들 단체에 이어 固本契·吉林住民會 등 다른

35) 위와 같음.

36) <大正 14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概況>(아연필 200-3-049), 84~86쪽.

<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아연필 100-001-030), 436쪽.

37) <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 435~438쪽.

38) <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아연필 100-001-030), 83~84쪽.

39) <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아연필 100-001-030), 87~89쪽.

단체들도 계속하여 통합에 대한 선포문을 발표하고 의결한 사무를 정의부로 인계하며 통합하였다.<sup>40)</sup> 단지 가장 큰 세력인 통의부와 그 다음 세력인 광정단만이 이들 단체들보다 명의 취소에 대한 표명과 업무 인수인계가 늦었는데 이는 워낙 기존의 체제가 방대하다 보니 실무적인 작업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의부는 임시행정집행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식으로 정의부 중앙행정위원회를 성립하여 각부의 조직을 완료한 후 〈중앙행정위원회 포고〉 제1호가 공포되는 1925년 3월 7일까지도 명의취소 및 사무인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정의부 중앙행정위원회는 통의부측에 이를 빨리 시행하도록 독촉하였다.<sup>41)</sup> 그러나 통의부나 광정단도 1925년 3월 중순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정의부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된다.<sup>42)</sup> 그리하여 1925년 3월 초 화전현의 임시행정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행정위원회 및 중앙조직의 구성을 완료한 정의부는 그 본부를 柳河縣 三源浦로 정하고 각 단에서 넘어온 인계사항을 받아 새로운 통합 군정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sup>43)</sup>

8개 단체의 합병으로 하얼빈 이남 약 40여 개의 현에 이르는 거대한 관할 지역과 수많은 한인을 관할민으로 가지며 새로운 통합 독립군단으로 출발한 정의부는 관할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민족의 근본목적인 독립투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정의부 중앙조직중 행정부에 해당하는 조직은 1925년 3월 초 각 단의 사무를 인계 받아 정식직의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1924년 10월 18일 10개 단체의 대표들이 전만통일회주비회 본회의에서 선임

40) 〈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 429쪽.

41) 〈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 439~442쪽.

42) 〈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 429쪽.

43) 〈大正 14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概況〉, 85~86쪽.

〈朝保秘第417號 大正 15年 6月 17日, 鮮匪團正義府ノ移轉ト中央通信發行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4), 369~370·575~576쪽.

한 분과위원을 확대 발전시킨 조직으로 그 부서 및 간부의 명단은 3월 7일 확정되어 3월 9일자로 《正義府公報》제1호에 발표되었다. 조직의 부서와 간부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중앙행정위원장  | 李 沍   |            |           |
| 중앙행정위원     | 玄正卿 · 池龍起 · 李震山 · 金容大 · 金履大 · 尹秉庸 · 吳東振 · 金東三 |            |           |
| ○ 幹政院 秘書長  | 金元植   | 간정원 비서     | 李仁根 · 姜英伯 |
| ○ 중앙심판원장   | 金應燮   | 중앙심판원      | 姜福元 · 康濟河 |
| 中央審判書記     | 李正一   | 檢理長        | 崔明洙       |
| ○ 민사위원장    | 玄正卿   |            |           |
| 민사부庶務課主任委員 | 李光民   | 민사부서무과위원   | 孫輔赫       |
| 민사부警務課主任委員 | 李泰傑   |            |           |
| ○ 군사위원장    | 池龍基(本명 池大亨, 별명 李青天)                           |            |           |
| 군사부軍事課主任委員 | 金世俊   | 군사부군사과위원   | 金萬東       |
| 군사부軍需課主任委員 | 金慶達   | 군사부군수과위원   | 洪益善       |
| ○ 법무위원장    | 李震山   |            |           |
| 법무부法務課主任委員 | 黃學秀   | 법무부법무과위원   | 李碩鎬       |
| ○ 학무위원장    | 金容大   |            |           |
| 학무부敎育課主任委員 | 高嶺信   | 학무부교육과위원   | 金弘稷       |
| 학무부編輯課主任委員 | 金官雄   | 학무부편집과위원   | 李丙吉       |
| ○ 재무위원장    | 金履大   |            |           |
| 재무부理財課主任委員 | 安奎元   | 재무부이재과위원   | 崔秉模       |
| 재무부會計課主任委員 | 宋秉浩   | 재무부회계과위원   | 朴錫九       |
| ○ 교통위원장    | 尹秉庸   |            |           |
| 교통부交通課主任委員 | 李官實   | 교통부교통과위원   | 金光國       |
| ○ 생계위원장    | 吳東振   |            |           |
| 생계부産業課主任委員 | 承震  | 생계부산업과위원   | 金基全       |
| ○ 외무위원장    | 金東三   |            |           |
| 외무부交涉課主任委員 | 張天澤   | 外務部宜講課主任委員 | 玄益喆       |
| 외무부宜講課위원   | 權英夏   |            |           |

○ 의용군 사령장 池龍起 副官 金昌憲・朴泰烈 經理 權德根  
(〈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 아연필,  
199-001-033, 429~435쪽).

위의 조직표에 의하면 정의부 성립 초기 중앙행정조직의 구성은 ① 중앙행정위원회 ② 간정원 ③ 중앙심판원 ④ 군사령부 ⑤ 민사·군사·법무·학무·재무·교통·생계·외무 등 8개의 행정부서로 조직되었다. 이같은 행정체계의 구조는 이후로도 근간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이 최초의 중앙행정조직 및 인물구성이 끝나고 한달후인 4월 9일 중앙행정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직제구조와 기능을 협의, 결정한 후 5월 15일 반포하였는데, 8개 행정부서 내의 각과가 약간 변동, 증가되고 중앙행정위원회 내에 인쇄국과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도였다.<sup>44)</sup>

한편 정의부의 무장활동을 실천한 의용군 사령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司令長 池龍基(별명: 池大亨, 京畿출신) 柳河縣 三源浦 소재  
司令副官 金昌憲(별명 昌煥)・朴泰烈 經理 權德根  
제1중대(무장단원 80명): 중대장 文學彬, 柳河縣 三源浦 소재  
제1소대장 車用睦, 제 2소대장 李奎星, 제 3소대장 金昌欽  
제2중대(무장단원 60명): 중대장 安鴻, 通化縣 興描子 소재  
제1소대장 ○ 武雄・제 2소대장 金世俊・제 3소대장 金保國  
제3중대(무장단원 80명): 중대장 金錫夏(별명: 金孝晟), 寬甸縣 下漏河 소재  
제1소대장 朱河範・제 2소대장 鄭伊衡・제 3소대장 崔觀○  
제4중대(무장단원 80명): 중대장 金昌憲, 소재지 미상  
제1소대장 金○河・제 2소대장 申浩承・제 3소대장 田龍烈  
제5중대(무장단원 80명): 중대장 金岡雨, 소재지 미상  
제1소대장 趙雄水・제 2소대장 ○昌俊・제 3소대장 金德山・제 4소대장 金○植

44) 〈高警第2468號 大正 14年 8月 5日, 正義府ノ職制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1), 666~690쪽.

현병대(무장단원 30명) : 대장 金錫夏, 寬甸縣 下漏河

제1분대장 金信鐸 · 제 2분대장 李觀 · 제 3분대장 張天○

이 사령부의 조직은 1925년 9월의 것이며, 대원의 총계는 410명이었다.<sup>45)</sup>

다음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중앙의회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의회는 다음에 살펴볼 정의부 관할지역 내의 지방조직 단위인 ‘地方’ 및 ‘獨立區’에서 선거하는 의원 및 중앙의회에서 선거하는 의원으로 조직하였다.<sup>46)</sup> 중앙의회의 의원 선출 방식은 관할지역 800호에 1명씩을 선출하였으나, 800호가 못되더라도 과반수인 400호가 넘는 지역에서는 1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구에서는 1개 독립구 내에서 1명의 중앙의원을 선출하였다.<sup>47)</sup> 이 같은 선출 방식에 의해 1925년 8월 1일 현재 지방 및 독립구에서 선출된 중앙의회의 의원은 23명이었다. 거기에 중앙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 중앙의원의 수는 대개 5명에서 7, 8명 정도였으니 중앙의원의 총수는 한때 약 30명 정도였다.<sup>48)</sup>

그러나 이 선출기준은 1926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헌장에서는 500호에서 중앙의원 1명을 선거하여 뽑도록 하였으며, 500호가 못되더라도 과반수인 250호 이상의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sup>49)</sup> 이같이 선출될 수 있는 중앙의회 의원의 자격은 정의부 관할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연령은 만 23세 이상인 자만이 가능하였고, 임기는 2년이었다.

사법기관을 보면, 구와 지방에 區查判所 및 地方查判所가 설치되었고 중앙에도 中央審判院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들 상설 사판소 외에 정의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조국광복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중앙에 특별 사판소를 설치하여 그를 심판하도록 하였다.<sup>50)</sup>

45) <在滿不逞鮮人團體 一覽表(大正 14年 9月 末 現在)>(平安北道 警察部, 通化縣 當安團 자료).

46) <대정 15년 2월 23일 正義府의 내분에 관한 건>(《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82쪽.

47) <대정 15년 2월 23일, 정의부의 내분에 관한 건>, 382~383쪽.

48) <高警第3083號 大正 14年 9月 4日, 在滿鮮匪團正義府ノ動靜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1), 1004쪽.

49) <대정 15년 11월 29일, 정의부 중앙의회 개최의 건>(《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94쪽.

이어 정의부 관할지역 내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조직된 지방조직 체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부는 헌장 제6조에 “區는 백호 이상, 지방은 천호 이상으로 하지만 지리 관계에 의하여 신축할 수 있음.” 이라고 하여 지방조직의 체계와 규모를 밝혔다.<sup>51)</sup> 이 조항을 보면 구는 지방에 속하는 행정 단위로 10개의 구가 1 지방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조직은 얼마 후 구와 지방이 관할할 수 있는 호가 반으로 줄어 1구는 50호를 1지방은 500호를 담당하도록 하였다.<sup>52)</sup> 그리고 천호 이상으로 總管區를 조직하여 총관이 지방과 구를 관할토록 하였다. 또한 구를 총괄하는 사람을 區長, 지방을 총괄하는 사람을 地方長으로 불렀는데 구장 밑에는 十家長이 있었으며, 지방장 밑에는 구장을 포함 百家長이 있어 아주 세밀화된 지방조직망을 갖추도록 하였다.<sup>53)</sup>

정의부는 이주한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산업부흥주의와 보다 굳건한 독립군기지의 구축을 그 실천 이념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이념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할민의 의무 및 권리사항을 정하였다.

#### 〈의무 사항〉

- ① 혁명운동에 노력하고 정병에 응하는 의무.
- ② 정의부 헌장 및 본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
- ③ 의무금 및 기타의 부과금을 납부하는 의무.
- ④ 자녀를 교육하는 의무.

#### 〈권리 사항〉

- ① 본부의 구·지방·중앙의 대의원 및 기타 직원의 선거·피선거 권리.
- ② 의회에 건의 청원하고, 또는 사판소에 소송하는 권리.

50) <대정 15년 2월 23일, 正義府의 내분에 관한 건>(《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86쪽.

<대정 15년 11월 29일, 정의부 중앙의회 개최의 건>, 같은 책, 398쪽.

51) <機密公第369號 大正 13年 12月 9日, 正義府憲章送付ノ件>.

52) <1928年 7月調, 在滿鮮人思想團體의 概要 第 2>(《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757쪽.

53) <抄件>(集安縣 당안관 자료).

③ 본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생명·재산·명예의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

④ 본부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리.

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信教 자유의 권리.

(〈大正 15年 11月 29日, 正義府 中央 議會 開催의 件〉,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0, 394쪽; 〈大正 15年 2月 23日, 鮮匪團 正義府의 內容에 關한 件〉, 《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843~844쪽).

이 의무 및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의무금의 경우 관내 부민 1만 5천 3백여 호에서 처음엔 매호 6원을 받다가<sup>54)</sup> 1926년 11월 제3회 중앙의회 이후 부터는 9원으로 올려 받았다.<sup>55)</sup> 또 개인이나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년 5백원 이상의 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규정은 ① 5백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분의 1, ② 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의 1, ③ 5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5분의 1, ④ 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분의 1을 받았다.<sup>56)</sup> 이 같은 諸稅의 부과와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의무 조항의 실천을 위해서 관할지역 내 각 한인 촌락마다 소학교를 세워 한인 자제에게 의무적으로 초등교육을 시켰으며, 부민이 많이 모여있는 흥경현의 왕청문과 유하현 삼원포에는 化興中學과 東明中學을 설립하여 중고등교육을 강화하였다.<sup>57)</sup>

그런데 각 독립군단과 연계된 이주한인의 경우 가진 것 없이 남의 나라 땅에와 자신들의 생계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측에도 保甲稅·巡警費·호구세·우마세·水利稅·地稅·영업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sup>58)</sup> 특히 1920년대 초 남만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중국인들에게 땅을 빌려 경작하고 수확의 약 70% 정도를 지주에게 착취

5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4, 130~131쪽.

55) 〈大正 15年 11月 29日, 正義府 中央議會 開催의 件〉(《한국독립운동사》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93쪽.

56) 〈大正 14年 5月 6日, 獨立不逞鮮人團正義府의 行動에 關한 件〉(《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05쪽.

5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4, 133쪽.

丁原鉉, 〈재만 정의부의 항일독립운동〉(《한국사연구》34, 1981), 134쪽.

58) 〈大正 13年 8月 4日, 불령선인 단속에 대한 건〉(《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516~517쪽.

당하는 소작인들이 대부분이었다.<sup>59)</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주 한인들은 독립군단에서 요구하는 의무금을 부담없이 납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각 독립군단에서는 이주한인들의 경제자립 내지는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정의부는 경제적 자립에 더욱 힘써 1926년 11월 보다 적절한 농업과 상업의 경영을 연구하여 관할지역 내 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興實業社를 조직하였고, 1927년 4월에는 김이대·김동삼·현정경 등 정의부 간부 30여 명이 발기인이 되어 農民互助社를 결성하였다.<sup>60)</sup> 농민호조사는 관할 부민들의 생계·교육·보건 등 생활 전반을 정의부 간부들이 술선 참여하여 개선·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직한 단체로 취지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주지방으로 이주한 조선농민의 생활은 실로 참혹하다. 이를 구조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① 산업상 생산의 증가를 꾀하고, ②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③ 위생과 보건을 수호하는 일로서 이것은 단독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므로 단체적으로 협동해야 한다.

이같은 취지로 농민호조사를 조직한 발기인을 비롯한 정의부 대표자들은 농민호조사 〈約束文〉을 제정하여 부민 상호간의 신용·박애·존중성과 근면성 및 청결성을 강조하였다. 그 바탕 속에서 부민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정의부 조직과 부민간에 민음을 일구어 의무금을 징수하는 한편 각종 신용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정의부의 항일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부는 효율적인 무장활동을 위해 독립군 부대를 국내진입이 쉬운 관전·홍경·환인·무송현 등 국경지방과 화전현과 길림 등, 국내를 향해서는 비교적 후방지역인 지점에 나누어 배치하였다.<sup>61)</sup> 이들 중 국내진입전을 주로 전개한 부대는 관전·홍경·환

59) 黃有福, 〈正義府研究(上)－社會的背景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225~226쪽.

60) 《日帝侵略下 韓國36年史》 7(국사편찬위원회, 1972), 307쪽.

在上海日本領事館 警察部 第2課, 《朝鮮民族運動年鑑》(1932), 215쪽.

61) 〈正義府軍隊之偏製狀況及根據地〉·〈韓匪變更通信日期〉(輯安縣 당안관 자료).



인·무송현 등에 배치된 병력이었다. 그리고 이들 국경지방에 설치된 정의부 소속부대들은 관할지역 한인의 집을 근거지로 한 통신망을 구축하였다.<sup>62)</sup>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로 진입한 정의부 유격대원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면, 1925년 3월 평북 초산으로 진입한 제6중대 소속의 金敬甫 부대 5명은 약 2개월 동안 벽동·삭주·창성·구성 등지에서 군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대원 중 金鳳은 5월 중순 경 유격대와 떨어져 단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제의 价川警察署員에게 피체되었으며, 나머지 대원 4명은 博川郡 博川面 松德里에서 일경 15명과 교전하다 전원 전사하였다.<sup>63)</sup>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제5중대 소속 李振武 부대 4명이 평북 龜城郡 新市駐在所 부근에서 일경찰대와 교전하여 일경 1명을 사살하였다.<sup>64)</sup>

한편 이들 국내진입을 위한 부대와는 달리 남만의 관할지역 곳곳에 배치되어 독립군 및 배일한인을 탄압하는 중·일군경대와 친일집단을 향해 무장 활동을 벌인 정의부의 만주 내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26년 7월 9일 제4중대 白雲班 부대 8명은 통화현 快當帽子 三合堡에 조직된 친일기관인 相助契를 습격하여 상조계의 해체를 명하고 군자금을 각출토록 하였다.<sup>65)</sup> 같은 해 9월 6일에는 제6중대 소속의 대원 5명이 통화현 해당모자의 상조계장인 친일파 申漢哲의 집을 급습하여 일가족을 살해하였다.<sup>66)</sup> 1927년 3월 11일에는 제1중대장 鄭伊衡 등 6명의 대원이 하얼빈에서 일경과 전투 중 피체되었다.<sup>67)</sup>

이같은 정의부의 자치 및 무장활동은 1928, 9년 참의부·신민부 등과 함께 3부 통합운동 결과 국민부 및 혁신의회의 성립으로 정의부가 해체될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다.

62) 〈韓匪變更通信日期〉(集安縣 당안관 자료).

63) 《東亞日報》, 1925년 5월 19일·5월 20일·22일 및 6월 2일.

64) 《東亞日報》, 1925년 9월 25일.

65) 〈不逞鮮人相助契脅迫에 關한 件〉(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821~822쪽.

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822~823쪽.

67) 《東亞日報》, 1927년 3월 22일.

### 3) 신민부의 성립과 활동

남만에서 정의부가 성립될 무렵인 1925년 1월 북만의 목릉현에서도 이 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夫餘族統一會議가 개최되었다.<sup>68)</sup> 이 회의에 참석한 독립운동계 대표들은 북만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3월 10일, 대한군정서의 金赫·曹成煥·鄭信, 대한독립군단의 金佐鎭·南星極·崔灝·朴斗熙·劉賢 등과 그 밖의 여러 단체 및 민선 대표들인 尹瑀鉉·朴世晃·金奎鉉·崔愚·李周鉉·金泰善·朴正德·金有聲·李根·李東天·于璣衡·黃公三·鄭錫俊 등이 寧安縣 寧安縣城 내에서 새로운 통합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新民府를 조직하였다. 창립대회에서는 “我等은 민족의 요구에 응하고 이래 단체의 의사에 기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취소하고 일치된 정신하에 신민부의 조직이 성립된 것을茲에 선포한다 …”라는 선포문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 〈결의안〉

- ① 기관명칭 : 기관의 명칭은 신민부라 한다.
- ② 제도 : 제도는 위원제로 하고 중앙·지방·구로 정한다.
- ③ 사업의 방침, 민사 : 필요에 의하여 기성의 자치기관은 서로 협조하여 진행시킬 것, 일체의 弊俗을 교정하고 각 기관에 警查機關을 설치할 것.
- 외교 : 대외관계는 가능한 한 신중 원만히 해결할 것.
- ④ 군사 : 의무제를 실시할 것. 둔전제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할 것,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간부를 양성할 것, 군사서적을 편찬할 것.
- ⑤ 재정 : 재정은 의무금 및 募捐金으로서 충용할 것. 의무금은 토지에 대하여 水田은 小垧 2元, 大垧 3元으로 하고, 밭은 小垧 1元, 大垧 2元 5角으로 하며, 상가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의 1/20을 징수하나 단 大洋으로 함. 기관에 조직된 지방은 일체의 모연금을 폐지할 것.
- ⑥ 실업 : 토지의 매매와 조세는 기관의 지도하에서 행하기로 할 것, 各人은 勞

68) 경상북도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19~120쪽.

動力作을 권할 것, 公農制를 실시하며 공동농지를 경영할 것, 식산조합을 둘 것, 부업을 장려할 것, 필요한 지방에는 소비조합을 설치할 것.

⑦ 교육 : 소학교 졸업연한은 6년, 중학교 졸업연한은 4년으로 할 것. 단 100호 이상의 촌에는 1개의 소학교를 둘 것. 필요에 의하여 기관에서 중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설립할 것.

⑧ 헌장 : 헌장은 기초위원회에 위임하여 창립총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완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

⑨ 경상비 : 금년도의 경상비(음력 3월부터 10일까지)는 現大洋 3천원으로 결정함.

⑩ 연호 : 연호는 民國年號를 사용한다.

⑪ 기타사항 : 본 기관의 총회는 매년 3월 15일 까지로 정한다.

⑫ 人選 : 中央執行委員會 · 參議院 · 檢査院

(《독립신문》, 1925년 5월 5일, 〈新民府를 組織〉).

결의안 채택과 함께 각 부서의 조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되었다.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위원장 김혁과 위원에 김좌진 · 조성환 · 朴性鑄 · 최호 · 정신 · 李英伯 · 崔正浩 · 許斌 · 劉賢 등이 임명되었다. 참의원에는 원장에 李範允, 의원에 洪鍾林 · 金震淵 · 金松岩 · 梁在憲 · 崔文一 · 黃公三 · 尹覺 · 李章寧 · 安浩然 · 安龍洙 · 許斌 · 金奎鉉 · 南極 · 車東山 · 李白香 · 宋象鉉이 선임되었으며, 檢事院에는 원장에 玄天默, 檢査員에 姜奎尙 · 盧湖山 · 黃國敏 · 姜寅秀 · 孫一民 · 金基南 · 羅仲昭 · 池章會 · 姜明鉉 · 楊允三 등이 선임되었다.<sup>69)</sup>

중앙조직에 이어 지방조직 또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갔다. 하지만 지방조직은 신민부가 북만주의 전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한 까닭에 그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에 조직망을 구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방조직은 자연 중앙본부에서 가까운 지역, 그리고 이주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시작된 곳이 寧安지방을 비롯한 來濱 · 珠河(현 지명은 尙志) · 穆陵 · 密山 · 饒河 등 中東線 지역이었다. 이들 지방에는 일찍부터 總辦이 설립되었고, 신민부의 관할 하에 이주한인의 교육 및 산업 활동이 행해졌다. 이후 1926년 6월부터는 제2단계 지방조직이 구축되기 시작

69) 경상북도 경찰부, 《高等警察要史》.

하여 액목·敦化·安圖 등의 지방에 15개의 총판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신민부의 관할 구역은 중동선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장춘에서 九站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백두산에서 흑룡강까지 미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sup>70)</sup> 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한인들이 신민부의 영향 하에서 생활하며, 조국의 광복사업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신민부의 무장항일투쟁을 이끌어갈 군사조직은 다음과 같다. 군사부 위원장 겸 총사령 김좌진, 부관 朱赫, 보안대장 朴斗熙, 보안 제1대대장 文宇天, 보안 제2대대장 白鍾烈, 보안 제3대대장 吳詳世, 보안 제4대대장 주혁, 보안 제5대대장 張宗哲, 별동대장은 문우천이 겸임하였다.<sup>71)</sup>

이같은 신민부의 무장대는 총계 530명의 인원이었고, 이들은 모젤 및 부로우닝 권총 또는 소총으로 무장하였다. 신민부는 이 무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穆陵縣 小秋風에 城東土官學校를 설립해 청장년을 대상으로 무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관학교는 1년에 2기를 배출하는 속성 과정이었으며, 교장은 김혁, 부교장은 김좌진이었으며, 박두희·백종열·오상세 등이 교관에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성동사관학교의 졸업생은 약 500명이었으며, 이들은 졸업 후 독립군의 간부로 활동하였다.<sup>72)</sup>

무관학교 교육에 의한 독립군 양성과 함께 신민부는 관할 지역 내의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軍區制와 둔전제를 실시하며 애국 인재를 키워갔다. 즉 군구제는 관할지역 내의 18세 이상 40세 이하 청장년의 軍籍을 작성해 이를 기본으로 한 독립군 대오를 편성한 것이었다. 군적에 오른 청장년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정규군에 편입되어 무장투쟁의 최일선에 나서도록 하였다.<sup>73)</sup> 이 같은 군구제 및 둔전제가 처음 실시된 지역은 1910년 전후부터 독립군기지로 개척되었던 밀산이었다. 이어 울창한 삼림지대로 독립군이 활동하기 쉬운 안도현이 두 번째 군구제 실시지역으로 채택되어, 그 곳의 한인 청장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독립군의

70) 崔衡宇, 《在外朝鮮革命運動小史》1(동방문화사, 1945), 79~80쪽.

71) 〈新民府의 略史〉(《自由公論》, 1982), 206~207쪽.

72) 尹炳奭, 앞의 책, 271쪽.

73)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大韓民國公報處, 1985), 109쪽.

임무를 수행하였다.<sup>74)</sup>

신민부는 이와 같이 관할 전 지역을 이용하여 자치를 위한 행정 및 군사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한인을 위한 자치와 항일활동을 펼쳤다.

먼저 자치활동을 보면, 신민부는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조국광복을 갈망하는 민족운동가들로서는 자라나는 후손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투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민부는 창립대회 때 발표한 그들의 결의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쓸 것을 밝히고 있다. 즉 100戶 이상의 마을에 소학교를 설치할 것, 교육을 통일시키기 위해 교과서를 편찬할 것, 학교의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교수의 자격을 정하고 노동강습소 및 통속 강습에 진력할 것 등을 창립과 동시에 밝힌 것이다.

그런데 신민부는 같은 해 10월에 열린 총회에서 소학교의 설립 기준을 더욱 치밀하게 하여 100호 이상의 지방뿐 아니라 30호 이상의 지방에도 소학교를 설립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1927년 8월에는 海林에서 北滿韓人教育大會까지 개최하여 교육을 통한 독립사상 고취를 강조하였다.<sup>75)</sup>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신민부의 교육 책임자는 관할 지역인 주하·목릉·밀산·요하·돈화 등 15개 지역에 50여 개의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신민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서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 수선이나 지리·역사 등의 교과서에 조국애가 담긴 내용을 선별하여 넣은 후 한글로 제작하여 교육하였다.<sup>76)</sup>

노동강습소에서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주한인들을 모아 문맹을 깨우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과학적인 농업 및 노동 방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신민부 관할 모든 지역에 노동강습소를 설립할 수는 없었다. 문맹자나 일반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상황은 신민부 뿐 아니라 같은 시기 활동한 참의

74) 〈新民府의 略史〉, 앞의 책, 208쪽.

75) 朴烜,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일조각, 1991), 190쪽.

76) 玄主煥, 《韓國流移民史》上, 語文閣, 1967), 485~487쪽.

부나 정의부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활동과 더불어 신민부는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였다. 즉 기관지인 《新民報》를 旬刊으로 발행하였으며, 기관의 활동을 관할 지역 한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선전문을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중동선 일대는 물론이고 북간도까지 배포하였다. 《신민보》는 1925년 4월 1일에 창간호가 나왔으며, 같은 해 8월 29일에 제12호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신민보》를 이용한 신민부의 선전활동은 한동안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홍보활동 못지 않게 신민부의 자치활동은 이주한인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민부의 산업활동 방향은 1925년 3월 10일 창립대회에서 밝힌 〈결의안〉 제6조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와 조세는 기관의 지도하에서 행하기로 할 것, 各人은 勞動力作을 권할 것, 公農制를 실시하며 공동농지를 경영할 것, 식산조합을 둘 것, 副業을 장려할 것, 필요한 지방에는 소비조합을 설치할 것” 등이었다. 신민부에서는 이같은 산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조직에 실업부(위원장: 李一世)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산업을 개발하여 관할한민들에게 이를 중점적으로 권장하였다. 1926년 11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산업 부흥 활동을 더욱 중히 여겨 이를 보다 확장하고 개선토록 하는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하였다.<sup>77)</sup>

신민부의 항일 무장투쟁은 주 활동지가 만주의 북부, 즉 북만지역이었던 관계로 남만을 무대로 활동한 참의부나 정의부보다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과적인 기록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신민부가 항일무장 투쟁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신민부는 그 당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항일활동보다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인재를 양성한다거나, 관할지역 내에 군구제 또는 둔전제를 실시해 유사시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펼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등 항구적인 무장투쟁력 확보에 치중하였다. 해마다 2기의 졸업생을 배출한 성동사관학교는 총계 500여 명에 달하는 독립군의 동량을 양성하였고, 군구제와 둔전제에 의해 신

77)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20쪽.

민부 본부에 등록된 북만지역 한인 청장년들은 언제든지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활동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민부가 직접적인 무장활동을 외면한 채, 이 같이 독립군 양성이거나, 군구제 및 둔전제 등만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사업을 펼치는 한편, 직접적인 무장투쟁도 함께 펼쳤던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무장활동 사항을 보면, 1926년 12월 모연대장인 黃一樵는 대원 崔普萬·蔡根宇·李永祚·朴朱瓚 등과 하얼빈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1927년 대원 李丙默·申鉉圭·孫許·孫鳳鉉·尹昌善 등은 국내의 경상도 지역까지 파견되어 군자금 모집활동을 펼쳤다.<sup>78)</sup>

그런가 하면 신민부는 하얼빈 이남의 남만을 무대로 활동하던 정의부와 접촉을 갖고, 두 단체가 합동으로 항일전선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즉 신민부와 정의부 대표들은 1926년 초 만나 두 단체의 무장력을 합쳐 무장항일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3월 1일 일시에 국내진입전을 단행해 일시 소강상태를 맞은 민족운동의 활로를 찾고, 재만 독립군의 항전의식을 내외에 알리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두 단체가 이같이 합치하여 실행하고자 한 계획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제가 압록·두만강변 국경수비대의 병력을 한층 보강하여 경계활동을 펼쳤으므로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sup>79)</sup>

이어 같은 해 3월 중에는 정의부뿐 아니라 참의부까지 참여시켜 세 단체가 합동으로 군사활동을 펼친다는 목적 하에 신민부원 朴觀海가 이들 두 단체를 방문하여 군사적 밀약을 체결하였다.<sup>80)</sup> 그리고 같은 달에는 정의부와 함께 액목현 산간지역에 공동운영의 무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하였다. 두 단체는 이 무관학교에 국내에서 넘어 온 30명의 청장년을 입교시켜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sup>81)</sup> 또한 1927년 4월에는 정의부와 연합한 후 러시아와 교

78) 林垺, 《北滿新民府》필사본(1945), 13~14쪽.

《동아일보》, 1928년 8월 5일(박환, 〈신민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304쪽에서 재인용).

79) 〈高警第1294號 大正 15年 4月 17日, 印刷送付ノ件〉(아연필100-4-034), 80쪽.

80) 〈高警第1336號 大正 15年 4月 20日, 鮮匪團新民府ト共產黨トノ提携說ニ關スル件〉(아연필100-4-034), 901~903쪽.

섭을 벌여 무기·탄약 및 군 장비를 공급받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두 단체가 합동으로 便衣隊를 조직해 무장활동을 펼칠 계획까지 세웠다.<sup>82)</sup> 이는 신민부가 북만에 위치했고 국내진입을 위해서는 정의부의 관할지역인 남만을 거쳐야만 했던 관계로 정의부의 통신 및 연락망을 심분 활용하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치던 신민부는 1927년 12월 석두하사에서 개최된 총회를 계기로 중앙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軍政派’와 ‘民政派’로 분열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분열의 발단은 같은 해 2월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인 金燮과 경리부 위원장인 유정근, 본부 사무원인 金允熙·朴敬淳·韓慶春·南重熙·李正和·南極 등이 일제의 경찰과 중국군 1개 중대의 공격을 받고 체포되면서 비롯되었다.<sup>83)</sup> 사건의 수습 방안을 놓고 신민부의 간부진 사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인 김좌진과 황학수·정신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사부위원장 최호와 김돈·이일세 등은 교육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한인사회를 안정시킨 후 무장활동을 전개하자는 논리를 내놓았다.

이들의 대립된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양측은 김좌진을 중심으로 적극적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측은 군정파로, 최호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던 측은 민정파로 불리며 서로 대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들 두 파는 서로 자신들이 신민부를 이끌 조직임을 주장하였다.

군정파는 영안현 密江 新安鎭에 본부를 두고 葦河縣 석두하사와 영안현 海林·寧一·寧二·寧三지방 그리고 半載河·東寧 등을 그 세력범위로 하였으며, 이를 따르는 신민부원은 약 200명 정도였다. 그리고 민정파는 본부를 同賓縣의 小亮子河 農坪에 두었으며, 주하현·동빈현·賓縣 등을 관할지역으

81) 《조선일보》, 1927년 9월 2일.

82) <朝保秘第1018號 昭和 2年 5月 12日, 在滿鮮匪團ノ勞農共產黨トノ策應說ニ關スル件>(아연필100-4-035), 741쪽.

83) 《동아일보》, 1927년 1월 28일·2월 1일.



로 하였고 따르는 신민부원은 약 180명 정도였다.

이들 군정파와 민정파의 인물들을 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군정파의 경우는 김좌진을 중심으로 황학수·정신·유현·백종열·오상세·장종철·주혁·金宗鎭·임강·趙覺山·이종주·閔武·권화산·최준·김호섭·박운집·한규범·권중인·박두희 등으로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신민부 창립 당시부터 군사조직의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신민부 창립 이전에는, 1922년 북만의 통합군단으로 성립된 대한독립군단 또는 그 이전 북간도에서 성립된 北路軍政署에 소속해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결국 군정파의 인물들 대부분은 신민부 소속이 되기 이전부터 김좌진을 중심으로 뭉쳤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정파는 민정파와 분리되면서부터 더욱 확고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민정파를 구성한 주요 인물은 최호를 비롯 金敷·이일세·문우천·최학문·獨孤岳·송상하·박성태·이교언 등이었다. 이들은 군정파와는 달리 창립시부터 이주 한인의 산업 및 교육 진흥 등 민사관계의 업무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신민부에 소속되기 이전까지 전력 또한 이들은 각자 여러 기관에서 산업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정파는 민정파대로 군정파와 분리되면서 확고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sup>84)</sup>

이같이 양분된 군정파와 민정파가 결정적으로 적대시하며 등을 돌리게 된 것은 賓州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였다. 1928년 10월 28일 신민부의 관할지역인 빈주에서는 한인 40~50명이 모여 중·일의 탄압을 막아내고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위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군정파와 민정파간에 극심한 갈등을 보였고, 빈주를 민정파가 관할하던 때였다.

김좌진이 이끄는 군정파에서는 이 회의를 민정파가 그들을 음해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오해하였다. 따라서 군정파에서는 회의장소에 무장대를 파견해 회의의 책임자인 黃赫 등 여러 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한인들에게 중경상을 입혔다.<sup>85)</sup>

84) 윤병석 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1997), 467~470쪽.

이같은 불상사가 있고 난 뒤 그 다음 달인 11월 하순 영안현에서는 민정파를 지지하는 관할의 6개 현 16지역의 한인들이 회합하여 北滿住民大會를 개최하고 빈주사건을 일으킨 군정파를 성토하였다. 그리고 군정파의 지도자인 김좌진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선고까지 내렸다.<sup>85)</sup>

신민부 내부의 갈등은 이같이 악화되어 단체를 분열시키고 해체까지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안고서도 신민부는 계속 유지되어 후일 민족유일당운동과 3부 통일운동의 한 구심점으로 참여하였다.

〈蔡永國〉

###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 1)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대두

192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독립운동계는 또 다시 항일민족전선을 통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민족운동가들은 1921년 4월 북경의 군사통일회의와 1923년 국민대표회의 등의 실패로 민족전선 통일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항일을 위해 국내외 모든 민족운동세력을 통일하는 것은 민족운동가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 일을 주창한 인물은 임시정부 국무령인 洪震으로 그는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한 大黨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홍진은 1926년 7월 8일 임시정부 국무령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3대 강령을 제시하였다.

85)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77~878쪽.

86) 〈在外不逞鮮人の 狀況〉(《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77쪽.

- ① 비타협적 自主獨立의 新運動을 추진할 것
- ② 全民族을 망라하여 공고한 黨體를 조직할 것
- ③ 全世界 피압박 민족과 연맹하여 協同戰線을 조직하는 동시에 연락이 가능한 友邦과 제휴할 것

이어 일찍부터 민족운동계의 통합을 호소하였던 安昌浩는 1926년 8, 9월 北京에서 사회주의자인 元世勳을 만나 이념과 노선을 초월한 민족의 대동단결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3차에 걸친 회합을 갖고 ‘大獨立黨組織北京促成會’를 조직하였다.<sup>1)</sup> 이렇게 시작된 전 민족 단결을 위한 민족유일당 조직운동은 북경에 이어 상해·무한·남경·광둥 등으로 퍼져갔고, 통합운동이 가장 절실한 만주로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졌다.

1927년 초 吉林에 도착한 안창호는 그 해 2월 在滿韓人 약 500명이 운집한 吉林城 東大門 밖 大東公司에서 민족의 대동단결을 역설하였다.<sup>2)</sup> 이어 안창호는 정의부를 비롯한 만주 각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협의한 끝에 이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전민족유일당을 구축하려면 먼저 전만주의 유일당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吉林縣 新安屯의 吉興學校에서 민족유일당 건립을 위한 全滿 독립운동단체 통일회의가 1927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총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sup>3)</sup>

회의에 참가한 단체 및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正義府：金東三・吳東振・高豁信・李光民・金元植・玄正卿・玄益詰・金學善  
・金履大・李旭・李俊・崔承一・崔一洽 外 4명

正義府 軍隊側：文學彬・梁世鳳・金錫夏・李雄 外 8명

南滿靑年總同盟：朴秉熙 外 十數名

1) 金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지식산업사, 1995), 245쪽.

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大韓國民公報處, 1985), 141~142쪽.

3) <朝保秘第919號, 昭和 2年 5月 3日, 在滿鮮人團體統一會議開催ニ關スル件>(아연필100-4-035), 701쪽.

韓族勞動黨：金應燮

中東線 方面(寧古塔)：馬龍德

기타 안창호·崔東旭·李一世·李尙德·朴治山·尹平·金東勳 外 數名이 참가함(〈朝保秘第919號, 昭和 2年 5月 3日, 在滿鮮人團體統一會議開催ニ關スル件〉, 아연필 100-4-035, 703~704쪽).

전만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회의였으나 대개가 반석과 길림에 본부를 둔 남만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서로가 대립되는 노선을 가졌다. 따라서 회의는 민족주의계의 정의부와 사회주의계통의 남만청충 및 한족노동당이 그들의 이념을 서로 접고 민족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안창호가 북경에서 사회주의자인 원세훈과 이념 및 노선의 합일점을 찾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구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도되었던 것이다.

대표들은 회의 의장에 이탁, 서기에 고활신과 최동욱을 선임한 후 전만 독립운동계의 통일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먼저 민족운동 통일기관의 명칭을 朝鮮革命黨으로 하자는 안건을 상정한 후 강령과 서약문 草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강 령〉

- 一. 제국주의 일본을 파괴할 것.
- 一. 미래의 운동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토지국유화를 기할 것.
- 一. 각 약소국 피압박 민족과 악수하여 통일운동 전선에 설 것.

#### 〈서약문〉

조선의 절대 독립을 이루고 민족이 평등을 향유하려면 오직 민족적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하므로 우리들은 심혈을 기울여 민족적 혁명당을 조직하기 위해 당 조직의 기본인 다음의 조건을 수립하여 절대적으로 행할 것을 서약한다.

- 一. 本 同盟會에서 제정한 강령에 절대 복종한다.
- 一. 本 동맹회에서 의결한 일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 一. 종래 黨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당을 해체하거나 變體해서라도 본 동맹에

서 조직한 당에 집중시키도록 노력한다.

- 一. 본 동맹 또는 본 동맹에서 조직한 당으로부터 지정한 기간 내에 기존 당의 해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당연히 그 당과 일체의 관계를 단절한다.

(〈朝保秘 第919號, 昭和 2年 5月 3日, 在滿鮮人團體統一會議開催ニ關スル件〉, 아연필 100-4-035, 701~703쪽).

이상과 같은 강령과 서약문의 초안에 대해 각 대표들은 이념을 합일시킨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집중 토의를 벌였다. 그러나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중 한 가지 이념에 집착해 있던 대표들은 결국 합일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18일 회의가 끝난 후 대표들은 전만주의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이념과 노선을 합일시킬 더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같은 준비를 하기 위해 時事研究會라는 기관을 조직하고 이탁·최동욱·박병희·이일세·김응섭 등 5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여 이들의 책임하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시사연구회의 활동범위와 운영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一. 본 회의 목적은 전민족유일당 수립의 방침 및 운동의 발전책을 연구함.
- 一. 본 회의 조직범위는 만주로 함.
- 一.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각 운동 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으로 함.
- 一. 중앙기관 및 지부를 설치함.
- 一. 중앙에 중앙위원 5명 이상, 지부에 지부위원 3명 이상을 둠.
- 一. 본회의 경비는 참가단체에서 부담함

(〈朝保秘 第919號, 昭和 2年 5月3日, 在滿鮮人團體統一會議開催ニ關スル件〉, 아연필 100-4-035).

즉 시사연구회는 만주 내에서 민족유일당 수립에 찬성하는 단체 또는 개인 모두를 수용해 중앙과 지부를 조직하여 그 방침을 연구하는 단체였던 것이다.

한편 시사연구회가 결성되기 전 1926년 5월 북만의 寧古塔에 설치되어 만

주 내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을 총괄하던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서도 1927년 1월에 민족유일당 운동과 관련한 활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참여를 표명하였다.

- ① 통일적 민족유일당을 전제로 하고, 이에 개인 본위로서 전 만주의 정예분자를 망라하여 전만 단일기관으로 한다. 국내외를 통하여 민족유일당이 성립되는 날에는 무조건 이에 참가할 것. 그 조직 방법은 당조직 방법에 준거하여 비밀 조직으로 할 것.
- ② 앞 항의 민족유일당을 신중히 조직하기 위하여 민족기관 조직위원회를 총국지도 아래에 설치할 것

(京城地方法院檢事局, 〈崔元澤等第一次間島共產黨事件押收文書譯文綴〉, 81쪽; 金昌順·金俊燁, 《韓國共產主義運動史》4, 청계연구소, 1986, 343쪽에서 재인용).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지침에 따라 만주에서의 민족유일당 운동은 사회주의계통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더구나 1927년 6월 29일 조선공산당 중앙에서는 만주총국에 “협동전선적 단일당을 조직하는 출발점은 시사연구회로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sup>4)</sup> 따라서 시사연구회는 만주 내의 민족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계통에게도 민족유일당 결성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만주 내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족유일당 결성을 연구하고 준비한 시사연구회의 대표위원 5인은 1927년 12월중 盤石縣에서 ‘南滿革命同志聯席會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지의 항일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 회의는 정의부의 경우 의용군 사령관인 吳東振이 같은 해 12월 일경에 피체되어 혼란스러웠고, 다른 단체들은 준비가 부실하여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시사연구회는 민족유일당 성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4) 京城地方法院檢事局, 〈崔元澤等第一次間島共產黨事件押收文書譯文綴〉, 77쪽(金昌順·金俊燁, 앞의 책 4, 345~346쪽에서 재인용).

5) 경상북도 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25쪽.

시사연구회의 전 만주 민족유일당 성립을 위한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인 1928년 1월 홍진과 鄭遠이 상해에서 만주의 통일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들은 남만 각지를 순방하면서 민족유일당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sup>6)</sup> 그런가하면 정의부의 중앙집행위원인 김동삼과 金元植 등 2인도 같은 해 4월 신민부를 방문하여 민족의 대동단결을 역설하였다.<sup>7)</sup>

이와 같이 남북 만주에 산재한 한인 민족운동자들간에 민족유일당을 조직하기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따라서 이들은 협의하여 1928년 5월 12일부터 樺甸縣 城興學校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sup>8)</sup> 참가 단체 및 대표자는 민족주의계 및 사회주의계통의 단체를 합하여 18개 단체에 39명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는 참의부 및 신민부측의 인사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참의부의 경우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파견하였으나 중국측의 경비가 삼엄하여 중도에 포기하였고, 신민부는 대표로 선출된 申肅이 회의가 종료된 후에야 도착하여 참석치 못하고 말았다.<sup>9)</sup>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대표들은 화전현과 반석현 내에서 장소를 세 번 옮겨가며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표들은 우선 李貫一(일명 : 李奎東)·池青天·李義太·李光民·李道 등 5명을 회의 진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의 정세와 일본제국주의 타도 방안을 위한 연설회를 열고 각지에서 수집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서 민족유일당 결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대표들은 그를 실천에 옮길 집행위원 21명을 선출하였다.<sup>10)</sup> 하지만 이어 토의된 민족유일당 결성 방법론에서 각 대표들간에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이미 속해

6) 위와 같음.

7) 蔡根植, 앞의 책, 147쪽.

8) 〈昭和 3年 6月 29日附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宛, 全民族唯一黨組織會議開催의 件〉(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 861쪽.

9) 〈昭和 3年 6月 29日附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宛, 全民族唯一黨組織會議開催의 件〉, 862쪽.

10) 〈昭和 3年 6月 29日附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宛, 全民族唯一黨組織會議開催의 件〉, 861쪽.

있는 단체의 형편에 따라 통일의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제기된 통일 방법론은 團體本位組織論・個人本位組織論・團體中心組織論 등 세 가지였다. 단체본위조직론은 장차 성립될 유일당은 기존의 작은 단체를 기초로 하여 그들을 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개인본위조직론은 기존 군소 단체는 대부분 지방적 또는 파벌적으로 결합된 단체이므로 이 단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하게 개인위주로 유일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마지막 단체 중심조직론은 기성 단체 중 가장 권위가 있는 유력한 단체를 중심으로 군소 단체가 종속되어 결합한 다음 점차 그 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방법론에 대한 이러한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민족유일당 성립을 위한 15일간의 회의는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각 대표들간에는 단체본위조직론과 개인본위조직론 등 두 가지 안건 중 한 가지를 지지하며 분열되었다. 따라서 단체본위조직론을 주장한 단체와 대표들은 全民族唯一黨協議會를 결성하게 되었고, 개인본위조직론을 주장한 측은 全民族唯一黨促成會를 결성하였다. 두 계열로 나뉘어진 단체와 대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민족유일당축성회 가담 단체와 대표자 명단

단 체 명	근거지	대 표 자	단 체 명	근거지	대 표 자
北滿靑年總同盟	中東線	黃基贊・李明道	麗族公議會	黑龍江省	李光民
南滿靑年總同盟	磐石縣	李鐵・金萬全	哈長靑年會	哈長線	尹丁雨・金文
東滿靑年總同盟	間島	李義太	在滿農民同盟	磐石縣	朴東初・李道日・金應燮
淞江靑年總同盟	黑龍江省	孫景鎬			

11) 〈昭和 4年 4月 22日附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主義 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74쪽.

〈昭和 3年 12月 3日, 선인 정의부 상황의 건〉(《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403~404쪽.



### 전민족유일당협의회 가담 단체와 대표자 명단

단 체 명	근 거 지	대 표 자	단 체 명	근거지	대표자
樂山일꾼組合	伊通縣孤榆樹	李宗洛·朴光	南滿青年聯盟	興京縣	尹平·崔鳳
拉法青年會	額穆縣	韓相善	農友會	懷德縣	金世光
다물團	興京縣	李靑雨·李東林	撫本青年會	撫順縣	金洪海·朴永世
正義府	樺甸縣	李靑雨·李貫一· 李鍾乾·高齡信· 梁世鳳·金文學· 裴洛山·康濟河· 全中波·李雄·李 世昌·吳世鎭	北滿朝鮮人靑總	中東線	金仁
新光青年會	柳河縣	安允植·張成德	東滿朝鮮人靑總	間島	金武

(〈昭和 3年 6月 29日附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宛, 全民族唯一黨組織會議開催의件〉, 《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861~862쪽).

비록 참의부와 신민부는 빠졌지만 間島를 포함한 남북만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회의에서 대표들은 합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 이와 같이 두 파로 갈라서게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1927년 1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힌 〈당만총지령 제4호〉에 의거 개인본위 조직인 축성회측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양파로 나뉘게 된 후 축성회측 단체들은 협의회측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협의회측이 주장하는 단체본위로 유일당을 성립시킬 경우 중앙집권적이지 못하여 성공적인 혁명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축성회측의 주장은 민족유일당이 조국광복을 위한 힘을 발휘하려면 중앙집권화한 하나의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단체가 연합하여 黨을 구성하면 그 같은 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13)</sup> 축성회측의 논리에 대해서는 협의회측을 지지하는 정의부 간부 중에도 동조자가 있었다. 즉 池青天·裴活山 등 정의부 간부들은 협의회의 논리를 부정하고 축성회측에 가담하였다.<sup>14)</sup>

12) 京城地方法院檢事局, 〈崔元澤等第一次間島共產黨事件押收文書譯文綴〉, 81쪽(金昌順·金俊燁, 《韓國共產主義運動史》4, 청계연구소, 1986, 343쪽에서 재인용)

13) 〈昭和 3年 9月 18日 朝鮮總督府 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宛, 全民族唯一黨組織에 관한件〉(《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65쪽.

이들 두 파는 이후 각기 나름대로 유일당운동을 강구하게 되었다. 축성회는 먼저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평등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유일당을 설립하자는 취지를 발표하였다.<sup>15)</sup> 그리고 1928년 5월 26일 개최된 在中華人青年同盟 창립대회를 통해 단체분위에 의존하여 협의기관의 명목하에 民族唯一協同戰線黨을 조직하는 것에 반대하며 民族唯一黨在滿促成同盟과 각 지역 축성회를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6)</sup>

또 정의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는 ① 민족유일당 조직을 준비한다 ② 革命先烈的 유언인 조선혁명 완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분투 노력한다 ③ 全民族 각층에 공통된 정치적 불평을 추출하여 민족유일당으로 총 집중한다 등의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sup>17)</sup> 그리고 민족유일당의 기관지로 월간 <前衛>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협의회가 이후 일을 추진하면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고, 1928년 6월에는 18조에 달하는 협의회 규약까지 정하여 발표하였다.<sup>18)</sup>

전 만주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유일당을 조직하기 위한 운동은 참가단체들의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운동의 추진에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하여 재만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족통일전선 구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 꾸준히 그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후부터는 1925년부터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던 정의·참의·신민부 등 3부를 통합시키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4) 위와 같음.

15) <昭和 4年 4月 22日附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76쪽.

16) 黃敏湖, <滿洲地域 民族唯一黨運動에 관한 研究—唯一黨促成會議를 中心으로—>(《崇實史學》 5, 1988), 181쪽.

17) <昭和 3年 12月 3日, 선인 정의부 상환의 건>(《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406쪽.

18) <昭和 3年 9月 18日 朝鮮總督府 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宛, 全民族唯一黨組織에 關한 件>(《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66~870쪽.

## 2) 3부 통합운동

민족유일당을 성립시키기 위한 운동이 협의회와 축성회 등 두 파로 나뉘어 지자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정의부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정의부는 유일당운동에 참가하지 못했던 참의부와 신민부를 결속하여 3부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1928년 9월 정의부는 참의부와 신민부측에 연락을 취하여 吉林에서 3부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sup>19)</sup> 그러나 이 회의는 처음부터 3부 대표들간에 여러 면에서 의견이 충돌되어 난관에 부딪혔다. 즉 민족유일당운동 당시부터 단체본위조직론을 주장해 온 정의부 측은 참의·신민 양 단체와 가진 회의에서도 이 논리를 계속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의·신민부 대표들의 의견은 달랐다. 정의부보다 세력이나 규모가 작았던 두 단체는 단체본위조직론으로 3부를 통합한다면 그 주도권은 정의부측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참의부와 신민부측 대표들은 정의부의 논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 ① 신민부·참의부·정의부를 완전히 해체할 것.
- ② 過程組織으로서 잠시 그 잔무를 정리 청산할 것.
- ③ 축성회 대 협의회 분규를 타파하고 全滿 일반의 大黨籌備를 실현할 것.
- ④ 이주민의 귀화를 장려하고 특수한 자치권을 획득할 것.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 《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876쪽).

참의·신민 두 단체의 주장은 결국 축성회측의 의견대로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한 채 구성원의 요소를 개인으로 하여 민족의 大黨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결국 두 단체의 주장은 정의부와는 전면 반대되는 것이었다. 3부 통

19)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76~877쪽.

일의 문제는 그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조건에서 이같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 의견이 제기되고 정식으로 대표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회의에 참가한 참의부와 신민부측의 대표들에 대해 각 단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통합운동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즉 신민부에서는 代表權抗爭問題, 참의부에서는 代表召還問題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sup>20)</sup> 대표권항쟁문제란 신민부 내부에 형성되었던 民政派와 軍政派 간의 대립에서 연유된 문제였다. 신민부는 1927년 2월 일경과 중국군 1개 중대의 습격을 받아 중앙집행위원장인 김혁과 경리부위원장인 兪政根 및 본부 직원 수명이 피체되는 곤경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신민부 내부에서는 이후 노선 갈등이 일어나 앞에서 살폈듯이 군정파와 민정파라는 두 파벌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3부 통일회의에 참가한 신민부 대표는 민정파에 속한 金墩이었다. 따라서 군정파에서는 김돈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통일회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sup>21)</sup> 신민부 군정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총체적으로 대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가 참석한 통일회의는 의미가 없었다. 정의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내어 신민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① 대표문제를 무조건 타협할 것.
- ② 타협이 불가능할 때는 쌍방이 함께 출석할 것.
- ③ 위 두 항을 실행하기 곤란할 때는 심사기관에서 정할 것.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 《韓國獨立運動史》 4, 국사편찬위원회, 877쪽).

정의부의 타협안에 대해 신민부 민정파는 ①, ②항에는 반대하지만 ③항은 찬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정파의 경우는 이들 타협안 전부를 반대하여 결국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20) 위와 같음.

21) 위와 같음.

한편 참의부의 대표에 대해 제기된 대표소환문제란 다음과 같다. 이는 참의부 본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참의부 대표 중 한 사람인 金篠厦는 일제의 밀정이니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권한을 정의부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회의에 참가한 다른 대표들에게는 본부로 소환 명령을 내려 대표권을 무시해 버렸다.<sup>22)</sup> 따라서 참의부로부터 김소하 처분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정의부측에서는 참의부 내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자 대표 중 한 사람인 金承學(일명: 金希山)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김승학은 오히려 본부에 있는 자들이 김소하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김소하는 자진하여 대표권을 포기해 버렸다. 김소하의 의사표명이 있자 3부의 대표들은 그를 뺀 나머지 참의부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sup>23)</sup>

이로써 참의부측의 대표소환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신민부의 대표권 항쟁문제는 여러 안이 제기 되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의부측은 협의회를, 참의·신민부측은 축성회측을 지지하여 서로 대립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개최하려 했던 통합회의는 본회의를 개최하지도 못한 채 결렬되었다. 3부의 대표들은 1928년 11월 초 통합회의가 결렬되었음을 발표한 후 해산하고 말았다.<sup>24)</sup>

1927년 초부터 일기 시작했던 재만 한국 민족운동계의 민족유일당운동은 우여 곡절 끝에 3부 통합운동에까지 이르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단지 1928년 5월 樺甸縣과 磐石縣 등을 오가며 개최된 회의의 결과로 나온 단체본위조직론을 주장하는 전민족유일당협의회와 개인본위조직론을 주장하는 전민족유일당축성회 등 두 파가 생겨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따라서 재만 민족운동계는 1928년 11월 3부 통합운동이 결렬되고 나자 이 두 파를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양상을 갖게 되었다. 즉 재만 민족운동계의

22) 위와 같음.

23) <昭和 4年 11月 26日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覽, 國民府第1回 中央議會開會의 件>(《한국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727쪽.

24) <昭和 4年 11月 26日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覽, 國民府第1回 中央議會開會의 件>(《한국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728쪽.

인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속해 있던 단체에 미련을 버리고 이 두 계열 중 어느 하나를 택해 소속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개인이 소속 단체를 부정하고 가담하여 중앙집권적 체제의 유일당을 만들기 원하는 인사들은 축성회에 가담하였고, 기존의 단체를 유지하며 유일당을 조직하기 원하는 인사들은 협의회에 가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기존의 단체가 완전히 분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전 만주의 유일당은 성립시키지 못한 채 축성회측의 주장대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 12월 하순에는 정의부의 인사 중 축성회를 지지하는 측과 신민부의 군정과 및 참의부의 일부가 연합하여 革新議會를 조직하였다.<sup>25)</sup> 이 단체는 새로운 정식의 기관을 조직하기 전까지 약 1년 이내 운영될 과도기적 임시기관이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집행기관이 구성되었는데,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원식이 선임되고 동위원에는 김승학·지청천·정신 등이 선출되었다.<sup>26)</sup> 임시기관인 혁신회의의 주요업무는 ① 大黨促成의 적극적 幫助, ② 군사후원 및 敵勢侵入 방지, ③ 합법적 中國地方自治機關(同鄉會) 조직, ④ 잔무정리 등 이었다.<sup>27)</sup> 그리고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3부의 관할지역을 잠정적인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전 참의부의 관할구역은 南區, 지청천·김동삼 등이 3부 통일회의 이후 정의부를 이탈하여 조직한 在野革命黨이 관할했던 지역은 中區, 전 신민부의 관할지역은 北區로 정하여 혁신회의가 통할하기로 하였다.<sup>28)</sup>

이어 혁신회의는 1928년 5월 중순에 개최된 전민족유일당조직을 위한 회의 때 협의회 및 축성회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인 者들이 조직한 期成會의 인사들과 통합하여 민족유일독립당재만책진회를 조직하였다. 책진회는 혁신회의의 이면기관 역할을 하면서 유일당을 신속히 결성하기

25)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78쪽.

26) 위와 같음.

27) 위와 같음.

28) 丁原鉉, 〈在滿 抗日獨立運動團體의 全民族唯一黨運動〉(《白山學報》 19, 1975), 208쪽.

위한 조직체였다. 책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동삼, 委員에는 金佐鎭・全盛鎬 등이었으며 활동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sup>29)</sup>

- ① 일반 구성분자를 策勵하여 黨의 集成土臺에 분투시킬 것.
- ② 조선의 혁명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여 만주운동의 내재적 모순을 정리하고 大黨 축성의 준비에 노력할 것.
- ③ 대당이 아직 성립하기 전 과도기에 있어서 악독한 魔手의 침입을 방지하는 한편 소위 滿蒙侵掠 적극정책을 배제할 것.

축성회측의 주도로 임시기관이긴 하지만 혁신의회가 조직됨에 따라 3부가 주도해 온 만주지역 한인 민족운동계의 활동구도는 일단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혁신의회에 가담하지 않고 3부에 남은 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새로운 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처리한 세력은 정의부 계통의 인사들이었다. 정의부는 민족유일당 회의 이후인 1928년 8월 24일부터 개최된 제5회 중앙의회에서 단체의 명의로 협의회를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다. 협의회를 지지한 세력은 정의부의 대부분 세력과 신민부의 민정파계통, 그리고 참의부에서는 沈龍俊・崔在京・李永熙・朴大浩 등이 통솔하는 세력이었다.<sup>30)</sup>

협의회측 인사들은 3부 통일회의가 개최될 무렵인 1928년 9월에 이미 조직했던 ‘民族唯一黨組織同盟’을 기반으로 통일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리하여 이 동맹의 명의 하에 1929년 1월 26일 길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은 대표로 현익철과 김이대를 선출하고, 주석단으로는 고활신・김이대・黃起龍(본명: 金燦)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정치부위원 현정경, 조직부위원 김이대, 선전부위원 辛日鎔, 군사부위원 李基德, 경리부위원 고활신, 노동부위원 崔芝文, 청년부 및 부인부위원 황기룡 등 8개 집행부서와 위원을 임명하였다.<sup>31)</sup>

29)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の 民族運動과 共產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878쪽.

30) 〈昭和 4年 9月 21日, 한족동향회 내경에 대하여〉(《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415쪽.

이어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은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했던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당면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동맹은 재만한인의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 기관을 설치하여 한인의 공민권획득, 한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설치, 자치행정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조직은 구·현·성·중앙의 4단계로 하고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같이 하여 협의회 최초 조직인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의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진용은 갖추어졌다. 그런데 이들 간부 중 《조선일보》기자 출신의 辛日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를 지낸 황기룡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임명된 것은 주목되는 바이다.<sup>32)</sup> 구성 간부의 이러한 성분 때문에 이 동맹은 무산 대충을 결집시키는 방식과 같은 이 시기 공산주의 단체의 방침을 취하기도 했다.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을 3부 합동에 의해 강화한 후 협의회측은 1929년 3월 하순 길림에서 3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표자회의에는 정의부의 대표로는 이동림·현익철·고이허·고활신·최동옥·이탁, 참의부 대표로는 심용준·林炳武·劉光屹, 그리고 신민부의 대표로는 李敎元 등이 참여하였다.<sup>33)</sup> 이들 대표들은 며칠간에 걸친 회의 결과 통일된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하자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동년 4월 1일 國民府를 성립시켰다.<sup>34)</sup> 그러나 이 새로운 통합체인 국민부는 4월 1일자로 강령과 헌장

31) 〈朝保秘第844號 昭和 4年 4月 26日, 民族唯一黨組織同盟ノ委員會議ニ關スル件〉, 1~3쪽.

32) 〈高警第882號 大正 15年 3月 15日, 上海ニ於ケル辛日鎔ノマルクス講座開始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3), 759~774쪽.

張世胤, 〈在滿 朝鮮革命黨의 成立과 주요 구성원의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14~115쪽.

33)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28쪽.

〈昭和 4年 11月 26日附, 國民府 第1回 中央議會開會의 件〉(《한국독립운동사》 5, 국사편찬위원회), 730쪽.

〈在滿抗日運動團體〉, 같은 책, 731쪽.

〈朝保秘第2069號 昭和 4年 11月 26日, 國民府第1回中央議會ノ顛末ニ關スル件〉, 3쪽.

34) 〈昭和 6年 5月末, 國民府ノ狀況〉, 3~7쪽.



을 제정하고 성립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지만, 참의·정의·신민부 등 3부의 명칭은 계속 유지하다가 국민부의 집행위원회가 성립될 때에 취소하기로 하였다.<sup>35)</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전 만주를 총괄하기 위한 민족유일당운동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약 2년간에 걸친 민족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운동은 정의·참의·신민부 등 3부의 시대를 끝맺음하고 혁신 의회와 국민부라는 두 개의 새로운 통합단체가 조직되었다. 이후 이 두 단체는 여러 변모를 거치며 재만 한인의 민족운동을 이어갔다.

〈蔡永國〉

---

35) 〈三府統一會 會錄〉, 12쪽.